

2010년 새해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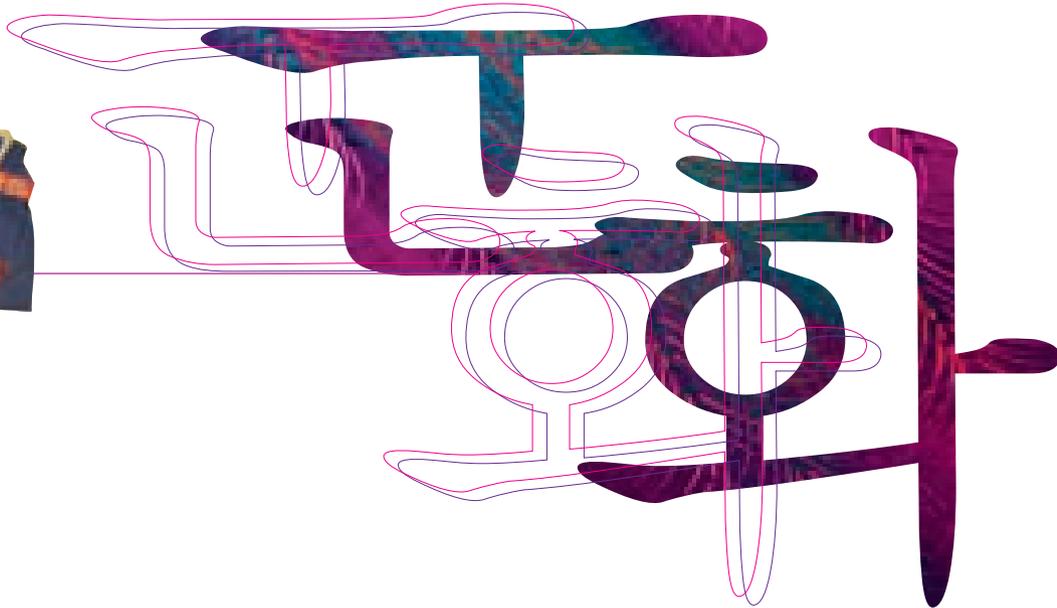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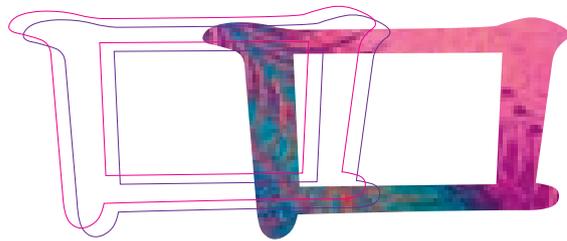
이슬만큼
복 많이 받으세요



강원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눈부시게 성장한 하이원의 2009년,
세계적 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 2010년에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0.02 Vol. 211 February





Contents

2010. 02 Vol. 211 February



02	2010 한국문화원연합회 업무계획	
06	한지봉 한술밥	평택문화원
12	춤추는 문화원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나눔
16	문화복덕방	한국점자도서관
20	우리자연살이	산 이야기_ 산을 넘는 방법
24		바다 이야기_ 겨울바다
27		들판이야기_ 이 세계를 조화롭게 묶어준다
30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금서(禁書) 이야기
36	인식의 전환_ 달라지는 교육문화	한국의 교육과 아동 청소년의 행복
39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42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의 앞길
46		금천예술공장
48	한국의 예절	공통예절
54	연합회 레이다	편집회의
56		문화원 이모저모
59		우리문화소식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of.or.kr | 전화 02)704-2311 ~ 3 | 팩스 02)704-2377 | 발행 · 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박종환(대신문화재단 사무국장), 김
정원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선(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형세인파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소켓을 받은 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인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2010

한국문화원연합회

2010년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업무계획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방문화원 지원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금년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요업무계획에서는 고령화 사회 지역특성에 맞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지방문화원 임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급별 교육 및 외부 위탁 교육 실시, 향토문화 콘텐츠 발굴 수집 및 자료화를 통한 향토사 자료실 지원 프로그램 구축, 문화원 실태조사 연구사업을 통한 도·농별 문화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계획한 주요업무계획을 소개한다.



■ 2010년도 업무목표 및 이행과제



1.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가기회 확대 및 이들을 통한 문화나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2005년부터 시행해온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가 올해로 6년째 계속 운영된다. 다음으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강사를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마을회관 등에 파견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강사파견”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중 우수문화프로그램 참여자로 구성된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사업을 통해 참여자를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마을회관·양로원 등에 파견하여 공연 등 실시할 계획이다 (“어르신퓨전예술단”, “왕언니클럽” 등).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사회적기업화” 추진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2. 향토사대중화 사업

지역의 향토사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온 향토사를 일반 대중이 친근하게 대할 수 있도록 향토사대중화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향토사대중화 사업에는 향토사문화콘테츠사업,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사업, 기타사업(대중화 취지에 맞게 지방문화원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사업)이 있다. 기존 향토사 교육사업을 한층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찾아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

게 교육하도록 하며, 향토사의 수집/발굴과 함께 이를 적극 활용하는 향토사문화콘텐츠사업 진행하는 것에 눈에 띈다.

특히 향토사문화콘텐츠사업에는 향토사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향토문화콘텐츠 제작교육, 향토문화 자원화 교육을 실시하여 대중들이 향토사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향토사 자원을 직접 다루고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소 고루하게 느껴졌던 향토사에 새로운 옷을 입혀 주민과 함께하는 향토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제25회 향토문화 공모전 개최

1986년부터 매년 진행된 향토문화 공모전이 올해에도 개최된다. 벌써 25회째를 맞는 향토문화공모전은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 및 활용을 통해 향토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올해 공모전은 예년과 다른 구성으로 더욱 많은 참여자가 응모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먼저 기존 박사학위취득자가 응모하지 못했던 부분을 과감히 풀어 일부 부문에 박사학위취득자도 응모하게 하였다.

이번 공모의 참여자확대는 향토문화의 우수한 연구결과 발굴을 기대한다. 또한 향토문화콘텐츠부문을 신설하여 향토문화의 문화산업화를 통한 향토문화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4. 지방문화원 정보화 사업

227개 지방문화원 통합 정보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세방화 트렌드에 맞춰 연합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① 연합회 홈페이지 전문 유지보수 시스템 도입 및 외국인용 영문페이지 도입, ② 연합회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 총람 섹터 활용 현황 정리, ③ 연합회 서버 및 트래픽 소요 감소를 위한 서버확충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④ 별도의 전문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액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홈페이지 활용, MS 워드 등 컴퓨터활용능력 실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5. 지방문화원 전문인력 양성

① 지역문화경영교육 | 문화원장 및 사무국장, 문화원 직원들은 지역의 문화매개자로서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지방문화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② 지방문화원 인력 워크숍 | 2010년 3월에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문화원 실무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 및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교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된다.

③ 전국 지방문화원장 세미나 개최 | 전국 지방문화원장의 지역문화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세미나가 2010년 4월 진행된다.

이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문화정책 및 문화원장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강,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우수문화원 사례발표 및 정보공유 세미나 병행, 지역문화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관련 초청강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④ 우수문화원 직원 선진문화시설 연수 | 해외 지역문화프로그램 등의 벤치마킹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외문화 기관(단체) 선진사례답사 및 교류 추진으로 문화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진문화시설 연수가 올해에도 계속된다.

각종 사업 우수 평가 문화원에 대해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며 지방문화원의 문화사업과 교류할 수 있는 해외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연수를 진행한다.

6. 문화수요 창출 및 지원

① 우리문화발간 | 연합회와 지방문화원과의 정보공유 강화와 사업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고 심도 있는 문화 콘텐츠 제공으로 문화원과 독자들에게 문화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월간「우리문화」가 계속해서 독자에게 배포된다. 지방문화원 및 유관기관에서는 매월 첫주에 받아볼 수 있다.

② 지방문화원 홍보리플렛 제작 | 2010년 4월, 2009년 기준 연합회 및 지방문화원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홍보리플렛이 제작되어 배포된다. 이를 통해 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의 대·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홍보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기획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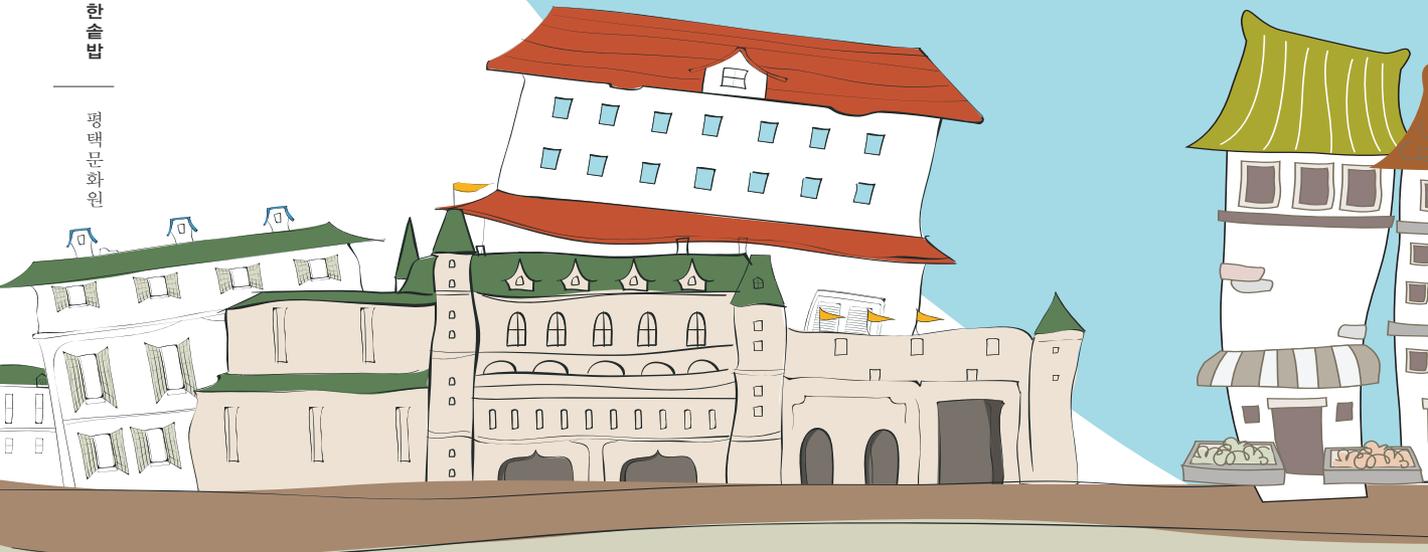
①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토론회 | 문화부 관계자 및 연합회 실무자가 전국 227개 지방문화원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부 추진 정책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문화원 담당 공무원, 문화원 임직원 대상 설명회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의 필요성을 확산시킴으로써 대내외의 지원과 관심유도 및 문화원장의 의견수렴 및 상호소통으로 인한 효율적인 문화사업 수행을 기대한다.

② 조사·연구사업 | 지역문화 중심기관으로서 기능 및 위상강화를 위한 체계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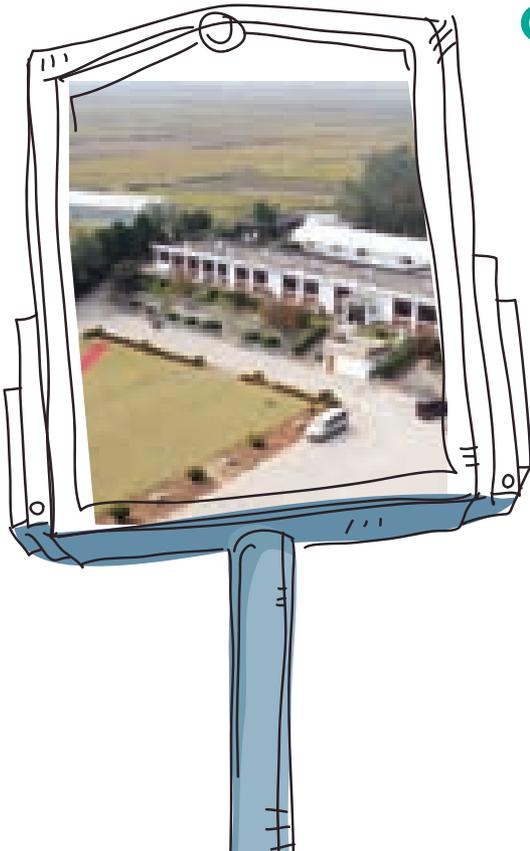
첫째,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둘째, 각종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분석과 문화원 평가지표 개발, 셋째, 2010년 지역별 시범프로그램 개발(권역별 구분), 넷째,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정부 건의(안) 연구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포계교에서 피어난 문화예술 평택문화원

경기도 평택시
웃다리문화촌
운영 사례





평택문화원은 유명 문화원에 속한다.

그렇지만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원사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역에서 행정이든, 운영이든, 아이디어든 문화원이 제일 앞장서야 한다는 원장이 있고,

매 주말을 반납하며 일하면서도 집에 가서까지 어떤 것이 더 필요할지 궁금한 직원들이 있다.

이곳에는 이렇게 단단한 마음들이 있었다.

문화원에서 크고 자라나는 평택문화원 식구들의 큰 꿈은 아직도 청년처럼 자라기 바쁘다.

평택문화원의 성과 중 웃다리문화촌 운영사례에 관해 알아보자.



초등학교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

학교는 특히, 초등학교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누구나 어렸을 적 추억의 대부분이 초등학교와 그 또래 나이의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 이를 입증해 주리라 생각한다. 코흘리개를 졸업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손에 끌려 입학식을 치르고 친구들과 어느 정도 말문을 틀 정도가 되면 봄 소풍을 가게 된다.

밤잠을 설치고 수십여리를 걸어서 도착한 곳이 고작 사찰이나 솔밭 정도이지만 왜 이리도 설레고 좋던지... 또 곤봉체조다 부채춤이다 달 반을 준비한 솜씨를 뽐내보는 대운동회. 초등학교에서 치러지는 어느 행사치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하고, 참여하지 않는 일이 있으려나. 졸업생과 마을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푹푹하게 베어나는 이 초등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2864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 이 학교는 6.25 한국전쟁 몇 해 전인 1945년 4월 개교한다. 한 때 학생 수가 증가해 금각국민학교로 승격된 적도 있었지만 미군기지 확장과 농촌인구 감소 등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어 마을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2000년 9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라는 명목으로 문을 닫게 됐다.

학교 부지를 내놓기도 하고, 자녀 교육이라는 일념으로 그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학교를 가꾸은 마을 주민들의 실망감은 몇 개월 만에 현실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온기가 사라진 폐교는 잡풀이 무성해지고, 청소년과 불량 어른(?)들이 드나든 흔적이 상처로 되돌아왔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곳이 지역주민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폐교, 문화예술 체험학습장으로 기적

평소 폐교를 창조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심해왔던 평택문화원은 이처럼 골칫거리로 전락한 금각분교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오용원 평택문화원장은 평택시와 평택교육청을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또 문화원에서는 이사 10여명으로 추진팀을 꾸려 마을 주민들을 만나 폐교 활용계획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한편 주민들을 최대 수혜자가 되게 하는 '문화공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른다.

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교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이하 생친)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넣고 현장 심사를 거친지 몇 달 만에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생친' 사



업에 선정된 것만도 경사인데 선정된 아홉 곳 중 사업계획이 가장 탁월하며, 현실적으로 추진 성과가 가장 클 것으로 심사돼 9천만원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받기에 이른다.

문제는 이제부터. 폐교를 어떻게 꾸미고 운영할 것인가?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을 적용할 것인가? 모든 것이 고민거리가 된 것이다.

‘평택문화원 폐교활용 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 활동으로 사용하는 폐 공간의 운영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을 답사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한 공청회와 30여 차례의 TFT 회의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이 폐교를 활력 있고 내실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험학습장’으로 시민에게 들려주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2005년 4월부터 앞이 안 보이는 1년여의 긴 터널을 이제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폐교에 새 옷을 입히다.

폐교의 운영 방향을 정하고, 부족한 자금도 평택시의 지원과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이 나자 사업에 활력이 불기 시작했다. 공간 명칭을 서울, 경기와 충청 등 중부지방을 일컫는 ‘웃다리’에서 따와 ‘웃다리문화촌’이라 짓고, 문화촌에서 활동할 문화예술인을 전국적으로 공개모집 했다. 서양화와 생활도자기, 석화공예, 음악, 놀이미술 등 7명의 작가를 뽑았으며, 본격적으로 시설 개·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시설 개·보수에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우선 옛 학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 외벽과 기본 골격은 가장 학교다운 모습으로 원형을 유지토록 했으며, 전기와 통신, 냉난방은 이용자와 입주 작가들이 가장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 시설

등을 갖추기로 했다. “학교는 학교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몇 년간의 방치로 인해 더럽혀진 건물의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운동장에 잔디를 깔고, 건물 전면에 침묵으로 테라스를 만들고, 도예실과 목공예실을 철골로 신축하는 작업이 척척 진행되었다. 이 작업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문화원 이사들이 동참해 내집짓는 마을까지 보냈다.

특히 교실 한 칸을 ‘웃다리박물관’이라 명명한 후 옛 교실 모습으로 꾸미고, 빛바랜 교과서와 잡지, 생활용품 등 50~70년대 추억의 물건들을 전시했으며, 긴 복도는 미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갤러리로 만들고, 운동장 한 편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농장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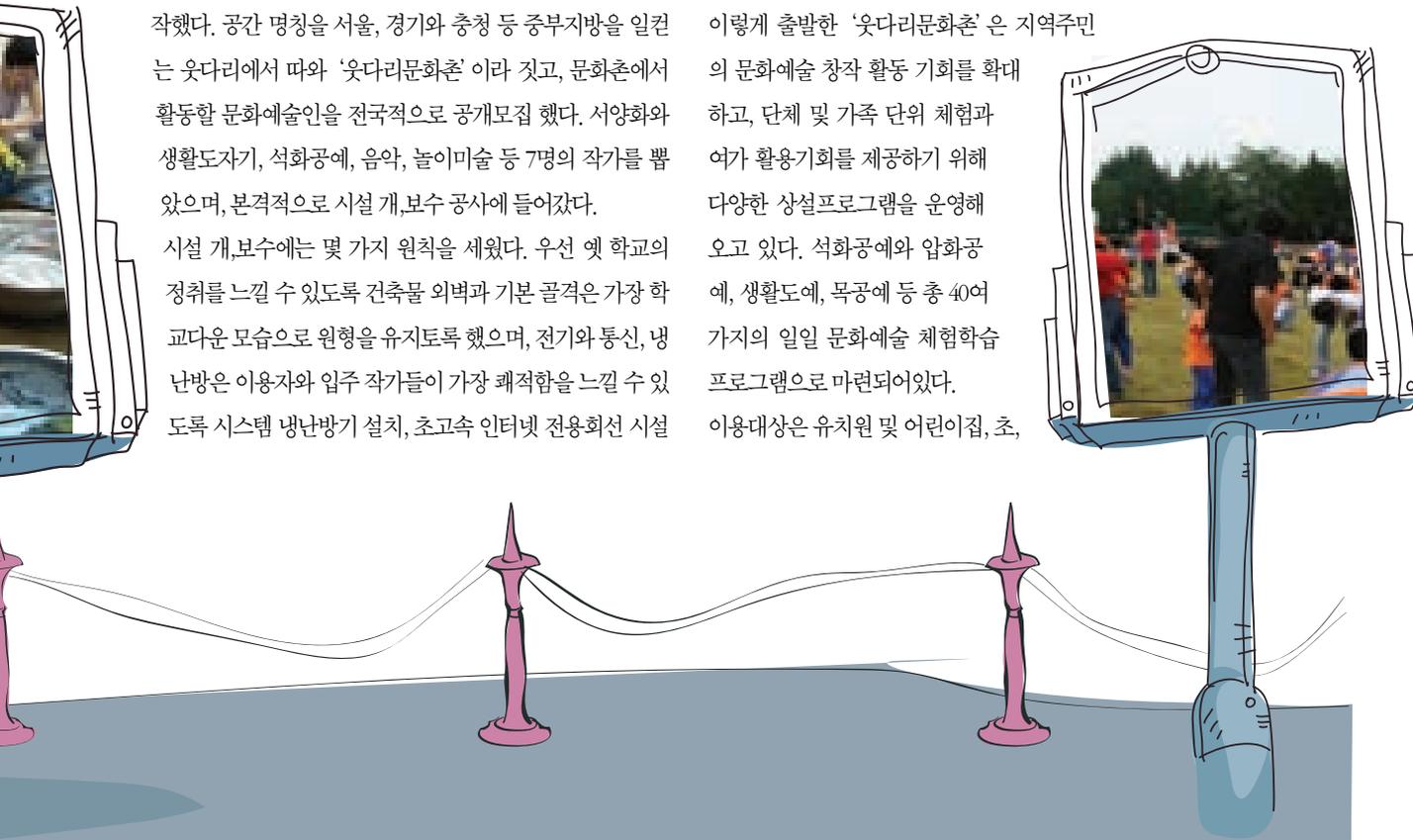
금각분교, 다시 주민의 곁으로

2006년 8월 11일. 금각분교는 ‘웃다리문화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역 주민의 곁으로 돌아왔다. 이날은 100여호도 안 되는 농촌 마을에 시골 출신 거물급 방송인이자 화가인 조영남씨가 초청되어 왔다. 국민가수 조영남씨는 이날 초청돼 공연과 함께 2주 동안 자신의 미술작품을 ‘웃다리문화촌’에 전시하는 깊은 배려로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출발한 ‘웃다리문화촌’은 지역주민

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단체 및 가족 단위 체험과 여가 활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석화공예와 압화공예, 생활도예, 목공예 등 총 40여가지의 일일 문화예술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있다.

이용대상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며,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데 이제는 평택시민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1회 참여인원을 20명으로 제한, 수업 집중도를 높여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크게 작용한 듯싶다.

일일 문화예술 체험학습과 함께 계절별 3개월 과정의 정기강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동반과 성인반, 실버반, 주말반, 취미반 등 계층과 수준별 강의로 생활도예와 석화공예, 서양화, DIY가구만들기, 평택농악 배우기, 오카리나 배우기 등 16가지의 정기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복지 실현한 소외계층 프로그램

오픈 초기부터 무엇보다도 관심과 신경을 쓰고 추진하는 것이 있다.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어르신들과 군 장병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복지와 문화가 만나서 복지를 문화적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셈이다. ‘웃다리문화촌’에서 운영하는 소외계층 프로그램 중 60

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

문화학교 ‘희망솥대반’ 운영과 ‘군 장병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특색을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실버문화학교 ‘희망솥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이면서 우리민

족 100대 상징물인 솥대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1단계로는 어르신들이 톱과 칼, 끌을 이용해 조그만 솥대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반복 학습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며, 2단계로는 어르신들이 배운 것을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강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를 강사활동을 통해 받는 강사비와 작품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을 기반으로 소득창출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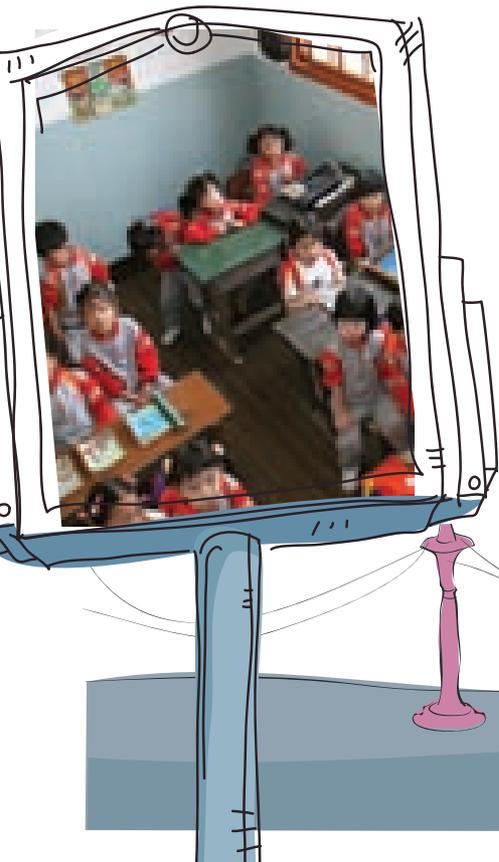
‘웃다리문화촌’의 ‘희망솥대팀’은 지난 한해 열심히 활동한 데 힘입어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2007 실버문화축제에서 전국 실버문화를 평가, 심사한 결과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돼 실버 스타로서의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평택은 공군작전사령부와 해군2함대사령부, 미 공군 등 주요 군사기지가 집결된 곳으로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곳이다.

군인들의 토, 일요일 여가활동을 어떻게 하게할 것인가가 하는 것이 최근 국방부의 과제중 하나라고 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웃다리문화촌’에는 군인들이 모여든다. 총, 칼을 들었던 손에는 전기드릴과 붓이 자리를 잡고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

유회를 비롯해 목공예와 도자기, 관화, 석화공예, 천연염색, 평택농악 등 다양한 장르의 취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장병은 취미를 뛰어넘어 수준급에 접어든 경우도 있다.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 장병들도 함께하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이 병영문화를 새롭게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일일체험과 정기강좌 프로그램 외에도 주말농장과 동물농장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가족 및 친구 등 모두가 즐



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이곳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의 창작 및 전시, 발표 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평택시의 문화 예술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화를 관광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웃다리문화촌'은 2007년 한해 2만5천여명이 방문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문화예술 체험학습과 정기간좌에, 또 주말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폐교를 새로운 공간으로 부활시킨 점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

또한, 이곳을 졸업한 많은 졸업생들이 찾아와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한 점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평택에 이러한 복합적인 문화예술 체험 장소가 생긴 점에 대해 지역 주민들 자체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평택지역 외에도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주민들이 인터넷 및 홍보물, 지인들의 소개로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평택을 방문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인들도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방문 목적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다. 한 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은 이곳이 일단 예전에 학교였다는 점에 친밀함을 느꼈으며, 성인들은 옛날의 추억을 회상해 볼 수 있는 장소로, 어린 아이들은 체험학습과 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즐겨워하고 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및 공간 등 모든 점이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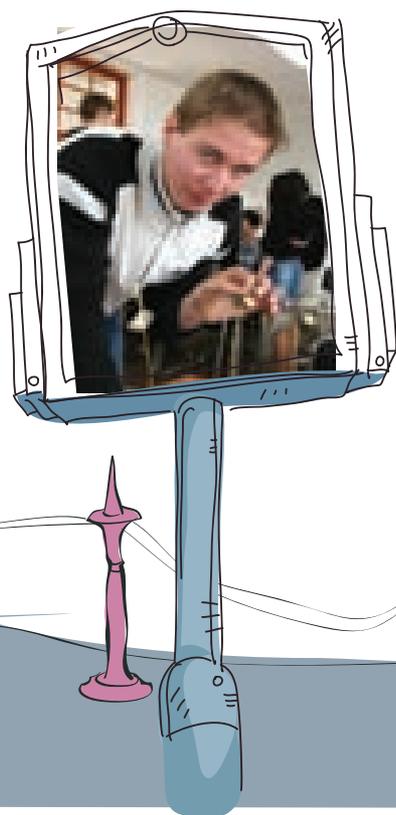
이제 '웃다리문화촌'의 과제는 무엇일까?

한번 방문한 이후 또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흡입요인을 만들어가는 일이 남아있다. 입주 작가들은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한달, 두 달 후 또다시 '웃다리문화촌'을 찾아도 식상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하는 농촌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주말농장 프로그램에 더해 절기별 프로그램이나 민속놀이 등을 주민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여 농촌의 부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폐교를 창조적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인 것이다.

박성복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전국에
문화의 향기를 전하는
훈훈한 공연 릴레이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나눔



지역민을 행복하게 하는 착한 사업,

2009년 12월 한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나눔'은 가는 곳마다 많은 화제를 낳았다. 지역주민의 행복지수가 곧 우리의 행복지수! 라고 생각하는 어르신공연단의 마음이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는 한편, 공연 후에도 즐거운 추억을 갖게하는 세심한 배려 또한 잊지 않았다.

동대문문화원 <왕언니클럽> ◦ 클 강임원(사무국장)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분위기로 팬시리 들뜬 마음이 드는 하루다. 오후 공연이 잡혀 있어서 '왕언니 클럽'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는 아침 일찍 만나 모두들 분주하게 준비를 서둘렀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문품도 챙기고 악기, 공연의상 등 갖가지 물품들을 모두 하나가 되어 버스에 실었다. 장소는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에텐노인전문요양센터'로 요양 중인 어르신들 대부분이 상당한 고령인 것은 물론, 외롭고 오갈 곳 없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하기에 오히려 더욱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드디어 출발! 약간 시간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성공적인 위문공연을 위해서 노래도 같이 불러보고, 리듬도 맞춰보면서 최종 점검을 하였다. 프로그램 순서도 다시 확인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동하니 어느새 한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도착하기 전 근처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흥분 반, 긴장 반의 이상한 기분 때문인지 배가 부른지도 모른 채 요양원으로 향했지만 그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후 1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도착한 우리는 부라부라 악기와 공연소



동대문문화원 '왕언니 클럽'

'동대문 실버중창단-왕언니클럽'은 흘러간 노래부터 최신 댄스곡까지 모두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일반인은 하기 어려운 노래와 안무를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공연에서 선보인다는 점이 전문가들도 놀라워 할 뿐만 아니라 그 실력 또한 여러 곳에서 인정받고 있다.

춤과 노래는 기본이며 난타와 밴드악기 공연, 한국무용과 사물놀이, 경기민요 등 세대와 동서양을 넘나드는 공연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왕언니 클럽'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한 시간 이상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다.

의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한다고 관계자가 귀뜸을 해주었다.

첫 난타 공연을 훌륭히 마친 '왕언니 클럽'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서로 마주보며 좋아하며 더욱 힘을 내야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또 공연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것은 그곳에 수용된 어르신들 뿐 아니라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며 의사, 간호사, 직원들의 수고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며 산골짜기에서 편찮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수발하다보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공연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들이 더욱 좋아하고 환호를 질러주면서 공연장은 후끈하게 달아오르게 된다. 우리는 '동대문 실버중창단 왕언니 클럽'과 문화원 소속 '색소폰 오케스트라', 남녀 가수로 공연팀을 꾸렸다.

일관된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하고 즐거운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서 순서도 몇 번을 수정하며 고민했었다. 특히나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에 신나는 캐럴 모음곡들도 섞고,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경기민요도 준비하였다.

미리 준비한 음료며 빵 등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해드리며 한껏 성탄절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약 두 시간의 위문 공연은 그렇게 성공리에 끝이 났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도 치시고, 어깨춤도 추시며 좋아하시는 모습들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내년에도 또 보자."라는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 속에 맴돌았다. 거동 불편으로 크게 말씀은 없으셔도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순간 이런 공연을 자주 하지 못하는 죄스러운 과거 가슴 뿌듯한 보람이 함께 밀려왔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르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하는 인사가 나왔다.

품, 음향장비들을 내리고 분주하게 공연 준비를 시작했다. 곧이어 '서울 동대문문화원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공연을 왔습니다. 모두들 강당으로 이동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흥분된 마음으로 모두들 기다리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의 부축을 받고, 아니면 휠체어에 몸을 싣고, 혹은 보행보조기에 의존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모이시기 시작했다. '에텐노인요양복지센터'에서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드문드문 빈자리가 보였다. 연로하시고, 또는 병세가 심각하신 분들은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강당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회로를 통하여 각방에서도 공연을 감상하며 함께 즐길 수 있다는 담당과장의 설명에 수용자 모두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내어 공연을 할 수 있었다.

첫 공연은 난타로 그 시작을 신나게 열었다.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는 난타의 리듬에 어르신들도 박수를 치시며 즐거워하셨다. 난타 공연 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참여하지 못하신 어르신들도 각자 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 되는 강당



찾아가는 이르신 문화나눔

영등포문화원 (사랑이 꽃피는 땡땡땡! 실버공연단)

◦ 글 김해숙(팀장)

“준비됐죠?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꿈을 실천하는 전문 실버연극단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프로처럼. 무대 뒤에서부터 이미 준비는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젊음의 상징이라는 록밴드도 구성해보고, 20대 초반에만 입을 수 있다는 레깅스에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요즘 유행하는 화장도 해보고, 연극 및 밴드와 댄스등으로 다양하고 개성 있게 작품을 구상하고 그려 보았다.

창작극 ‘해아숫이라. 2009 희망의 해아 숫이라’는 실의에 빠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코자 만들어진 것이다.

몸 바쳐, 청춘 바쳐 회사에 매진했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하고 집에서는 이혼 위기에 처한 실직가장에게 제 2의 삶을 살

고 있는 어르신 공연단이 ‘노라조’의 슈퍼맨 복장으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밴드 연주 및 난타 공연을 하기도 하면서 힘들어하는 청춘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인 것이다. 예순을 훌쩍 넘긴 어르신들이, 꿈을 잃지 않는 한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와 우리도 배우가 될 수 있고, 가수가 될 수 있고, 춤추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청춘이여,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밤새도록 연습을 했다.

그러나, 무엇하나 그냥 되는 것은 없다고 정말 쉽지만은 않았다. 소품, 의상부터 시작해 매번 창작극을 준비하는 우리 공연단은 공연수준이 타 기관에 비해 높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는 관내 유치원 및 보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공연하는 것을 비롯, 각 방송사에 출연하며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대표적 사례로 방송되는 것 또한 우리 극단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느낀점은 어르신들에게는 로또 1등 당첨보다, 자신들의 꿈을 이해하며 펼칠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이라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문화원 연합회에서 마련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어르신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 모든 관계자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와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금 전해본다. 자신의 삶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행복한 추억이라는 선물을 줬다며 기뻐하는 실버들을 대신하며.....

가평문화원 (새싹실버한국무용단) ◦글 이흥귀(사무국장)

어르신문화학교는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이 끝날 무렵 '어르신 문화니눔 공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공연을 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연말에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흔쾌히 승낙하였다.

가평에는 물 맑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이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평 꽃동네라는 곳을 공연계획을 가지고 원장님과 함께 가평꽃동네를 찾아가서 공연 계획을 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때가 늦어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연말이라 금년 말까지 계획이 전부 잡혀있어 공연 약속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 이리저리 수소문하다가 가평군 북면 백둔리에 있는 '상신노인전문요양원'을 찾게 되었다. 공연을 하고자 한다고 제의하자 요양원 원장님은 참 좋은 기회라고 흔쾌히 승낙하여 금년 12월 22일로 정하고 준비에 열중하였다. 드디어 공연 날. 원장님, 부원장님, 문화원 직원과 어르신문화학교 수강생 문화예술단 경기민요 수강생과 함께 상신노인전문요양원에 공연을 시작하였다.

공연 전에 생일잔치 상을 받은 노인 한분이 있어 공연팀과 함께 생일축하노래를 시작으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요양원 공연장소가 부족하여 일부 수강생만이 참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어르신문화학교 수강생이 화관무를 가지고 첫 공연이 시작되면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겁게 보시는 것을 보니 참으로 잘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관무가 끝나고 어우동 공연이 끝난 후 경기민요를 시작하자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즐거운 모습으로 박수를 치면서 함께 동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선비춤과 경기민요 무녀도를 끝으로 마무리단계에 가평군 행정을 총괄하시는 이진용 가평군수님이 공연 축하와 함께 상신노인 전문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축하 겸 격려해 주시러 이곳을 찾아주셔서 정말 보람 있는 공연을 마무리 질 수 있었다.

어르신 문화니눔 공연을 보기위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 정성영 담당도 함께 참가하여 주셔서 더욱 빛나는 공연이 되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 보면서 자주 찾아주는 공연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고령화시대에 자식들에게 의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는 노인 복지시설이나 전문요양원을 많이 찾을테니 말이다.

작은 시설이지만 이곳에는 70여명의 노인들이 요양전문치료를 받으면서 지내시고 있고 사회복지사분들도 여럿 계신다. 가끔이지만 이렇게 찾아와 공연하는 우리들이나 옆에서 보살펴주시는 사회복지사분들로 인해 어르신들도 많은 기운을 받으실 거라 생각된다.

가평문화원은 앞으로도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등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끝으로 이 행사를 지원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상신노인전문요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손끝에서 만나요

마음으로 만나요

한국점자도서관

눈 내린 암시동,
 서울 어디에서든 밀다면 밀고 가깝다면 가까운 동네다.
 흠뻑히 남겨진 눈(雪)의 흔적이 종이 위의 점자길다.
 꾸욱 누르니 손의 체온으로 금방 눈이 녹는다.
 눈(目)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눈(雪)을 읽는 이의 마음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질까.
 어느 오후,
 그 많은 눈(目)을 대신하는
 암시동의 한국점자박물관을 찾았다.



○ 표 크 F 츠 ㅈ ○

점자의 책을 만날 수 있는 곳, 한국점자도서관

암사역 3번 출구로 나와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 막상 가보니 가는 길은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길을 안내하는 직원이 우왕좌왕이다. 아마 방문하는 이가 드물어서 일거다. 도서관에 찾는 이가 드물다니 그곳도 신기한 일이다. 도서관의 특성상 방문은 없고 거의 모든 대출은 예약을 통하여 우편으로 발송되어지기 때문.

“이곳의 대출은 우편예약을 통해 이뤄지고 녹음도서는 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직접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지 않고 내방자가 시각장애인 등이므로 이곳에 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올해로 41년을 맞은 중년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육근해 관장의 말이다.

“이곳은 선천께서 1969년에 설립하신 곳이에요. 선천께서 시각장애를 앓으셨고, 다행히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집안의 아이로 태어나셔서 큰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으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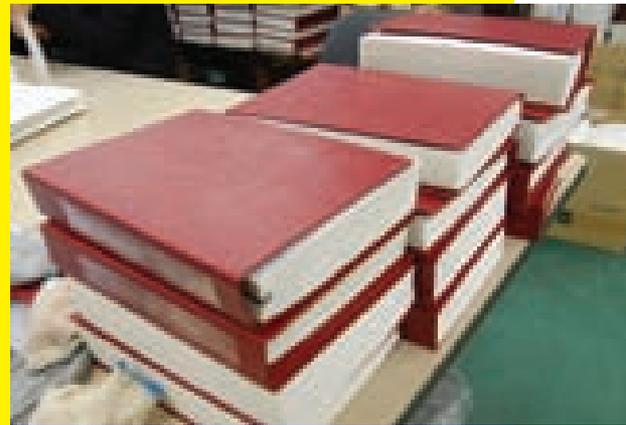
해방 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에게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전무 하다시피 했고 그나마 어느 정도만 하면 만족해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뜻을 품고 첫 발을 떤 거죠. 많은 일이 있었지만 1987년에 무상으로 쓰던 도서관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1990년대 초반 자선음악회, 전시회 등을 통해 지원을 받았지요.

그러다 1997년 이곳을 지원받아 건립하게 되었고 아, 본격적으로 내가 뛰어들어야 했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문헌정보 등의 공부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41년의 세월은 몇 마디 말로 정리되는 것이 무색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띄운 첫 열매를 안고 온 그녀였다.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장





easy to read, 소외된 자들의 쉬운 읽기를 위해

1970년대 육근해 관장의 선친 육병일 선생은 서둘러 특수교 육진흥범 점자도서관설립에 관한 조항을 법제도화해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1979년 점자도서관 1호로 등록을 마친다.

그런 과정 속에서 1980년에는 이동도서관 제도를 도입하고, 1990년대에는 디지털화하여 '데이지'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최초의 녹음도서 콘텐츠이다. 가파른 시간 속에 한국점자도서관의 형태는 슬슬 갖추어져 가고 있었다. 현재 육관장은 여러 형태의 도서를 만들고 있다.

점자와 목자(일반 인쇄된 활자를 말한다)가 혼합된 형태의 어린이도서를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는 책을 만들기도 하고, 형견북 같은 촉각도서를 만들어 시각 장애인들이 좀더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책자도 만든다. 점자를 찍고 제본을 하고 인쇄 모듈을 이곳에서 한다.

“책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또한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봐요.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2008년 시작한 북소리서비스에 대해 호응이 굉장히 좋았죠. 여름방학에는 생태체험과 문학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교육공간,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해요.”

육관장의 올해 목표는 'easy to read' 다. 말 그대로 읽기 쉬운이다.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청각·지적·중증장애, 다문화 가정 등 주변부의 사람들이 텍스트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함이다.

많은 양의 일을 만들어내고 해결하면서 하나씩 생겼을 육관장의 웃음주름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열정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타자로, 사회로 향해 있기 때문이라.

오
스
터
모
리
니
고
고
고
고



훈민정음? 아니, 훈맹정음!

훈맹 정음을 창제한 송암 박두성 선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제하여 우리나라 20만 시각 장애인의 아버지로 우러러 보는 송암 박두성 선생은 1988년 4월 26일 인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6번지에서 탄생하여 1963년 8월25일 76세를 일기로 서거 하였다.

선생은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학을 수업하고 8세때 강화도의 보창학교에서 4년간 신학문을 배웠고 14세 때 극심한 한파로 흉년이 들어 초근목피로 연명하기조차 어려워서 고향을 등지고 가출하여 인천을 통하여 일본상선을 타고 오사카에가서 점원생활을 두 달간 하다가 눈병을 앓고 있던 중 만아들이라는 책임의식 때문에 귀국하게 되었다.

선생은 첫 외유실패를 계기로 신교육에 눈을 뜨고 교육에 대한 향학열과 암담한 현실 앞에 갈등 하다가 감리고 권신일 목사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선생의 청년 시기는 한일 합병으로 국권이 상실된 일제식민지 통치하의 암울한 때에 독립운동가 이동휘 선생께서 "남이 하지 않은 사업에 평생을 바치게" 라는 권유와 실력배양을 위한 후배양성에 전념 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26세 때부터 불행한 시각장애인 교육에 평생을 투신하면서 1920년 2월부터 한글점자개발에 착수한지 6년 7개월 만에 각고의 노력과 당신이 실명할 위기를 넘기면서 1926년 8월 한글 점자를 고안 완성한 후 그해 11월 4일 훈맹정음을 세상에 발표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선생은 일제의 창씨개명 등 우리나라 문화 말살정책과 끊임 없는 억압 감시에도 불구하고 조선어 점자 연구회를 통하여 한글 점자를 보급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 회람지 "촛불"을 발행함은 물론 주요 서적인 성경, 명심보감, 각종의학서적등 76점을 점자로 보급하는 등 오로지 한평생을 남의 불행 을 건지려고 자기행복을 버리신 거룩한 삶을 산 시대의 선각자며 우국 지사였다.

선생의 훌륭한 업적은 생전에 인정받아 국민 포장을 (75세)

을 수상 하였고 사후엔 1992.10.9일 은관문화훈장이 추서 되었으며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 4월 문화인물로 선정되었다. 2010년 중학교 1학년1학기 국어 교과서에 "손끝으로 여는 세상" 제목으로 선생의 일대기가 실려졌다.

부연하건데 선생이 태어난 고장인 강화에서는 "송암선생문학사업선양회" 단체가 출범하여 선생의 생가복원 및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판사업 및 유물수집 전시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선생의 숭고한 뜻을 본 받고 역경을 딛고 이룩한 업적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문화화 교육화 유적지화 사업에 진력할 것이다 .

류중현 강화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장



아리랑연가집

산 이야기 | 산을 넘어가는 방법

산^山 이야기

을 걷는 방법



山

강원도 첩첩산중 오대산 자락에서 태어나 살다보니 세상 어디를 가려 해도 재를 넘고 다시 큰 영을 넘어야만 했다. 조금씩 세상에 눈이 떠가자 사방이 높은 산뿐인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슬슬 지겨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주 막연한 그리움에서 출발한 질문은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기 시작했다.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신작로를 오가는 직행버스의 행로가 궁금했고 당연히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신기했다. 그러던 어느 무렵부터 누나들의 교과서인 지리부도를 펼쳐놓고 점자를 읽듯 손으로 짚어가며 지도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 지도엔 내가 사는 산골마을과 연결된 세상의 길들이 있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들, 그리고 바다가 있었다. 오, 그 놀라움이란! 그때부터 나는 산을 빠져나가 도시를 지나 바다로 가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바다와 도시에 사는 친척이 없었을 뿐더러 옥수수와 감자로 연명하는 대관령의 가난한 산골 집에서 그곳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초등 저학년의 내 꿈은 그렇게 속절없이 꺾여버린 것이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나는 거의 손에 달고 지냈던 지도를 들고(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갈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지도상으로는 분명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일 것 같았다. 마을 형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다. 날씨가 좋으면 동해바다를 볼 수 있다고. 산을 오르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친구들과 노상 쏘다니는 곳이 앞산 뒷산이었기에, 눈 내린

겨울이면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하고 평과 토기를 쫓는 곳이었기에, 오월 늦은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 엄마와 누나들과 함께 참나물, 두릅, 싸라나물, 고사리, 곰취, 나물취, 고비를 뜯으러 다닌 곳이었기에. 그러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는데도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첩첩이 주름져 있는 푸른 산 능선들뿐이었다. 저 아래 필통만 한 우리 집이 서러워 눈물만 찼끔거렸다.

그 후 몇 번 더 다른 산을 올라갔지만 보이는 것은 여전히 다른 산들뿐이었다. 산과 산비탈 밑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로 배를 채우고 등을 따스하게 데우면서도 나는 어떻게든 산을 떠나고만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완행버스를 타고 대관령을 넘어와 옷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집집을 돌며 옷을 피는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보따리 안에 그렇게 다양한 옷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엄마는 옷 몇 벌을 콩과 물물교환을 했다. 나는 그 아주머니가 강릉에서 왔다는 말에 그 주변을 떠날 수 없었다. 강릉에 대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기차에 대해, 바다에 대해, 경포대에 대해, 아주머니는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함께 강릉에 가서 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물론 우스갯소리였지만 나는 진담으로 들었다). 그러면 좋은 옷도 입게 해주고 바다도 실컷 보여주겠다고. 망설이지 않고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막차를 타려고 아주머니가 짐을 꾸리자 나도 간단한 짐을 꾸렸다. 엄마에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다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버스 타는 곳까지 따라갔다가 엄마에게 빗자루로 얻어맞고 울면서 돌아왔다. 대관령을 향해 휴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완행버스를 바라보며, 엄마는 내게 자식도 아니라고 화를 냈다. 자식도 아닌데 왜 못 따라가게 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나는 산그늘이 내려오는 골짜기 집으로 달려갔다. 서럽고 외롭고 고독했다. 내가 마침내 산골짜기 함석집을 떠나 대관령을 넘는 건 아마 초등학교 오학년 여름방학이었을 것이다. 친척보다 더 친척 같은 이웃집이 몇 년 전 삼척으로 이사를 갔었다. 그런데 방학이 되자 식구들이 처음으로 우리 집으로 놀러왔다가 나와 누나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였다. 마침내 오랜 소원이 현실로 변한 거였다. 태어나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대관령 아흔아홉 구비를 넘었다. 멀미를 몇 번이나 하며, 강릉 차부에 내렸을 땐 얼굴은 이미 노랗게 변했고 다리는 서 있을 힘도 없었다. 산을 빠져나오기가 그토록 힘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이번엔 강릉역으로 가서 삼척 가는 기차를 타야 했다. 기차도 처음 타보는 거였다. 기차는 버스와 달리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는 게 신기했다. 마치 뒤로 달리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삶은 달걀을 먹고 사이다를 마시고 쭈쭈바를 빨며 흥분해 있는데 마침내 바다가 나타난 것이다. 바다! 파도! 그리고 감감한 터널! 열어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기차의 연기. 내 눈과 몸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무리였던 모양이다. 나는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그동안 먹었던 것들을 모두 토해버리고 말았다. 바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그래도…… 창피했지만 행복했다. 기차에서 멀미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라고 주위에서 흉을 봤지만 여전히 행복한 첫 여행이었다. 그렇게 바다 속으로 풍덩 들어가 찼물을 한 입 삼켰다.

산속으로 돌아온 나는 한동안 얼굴이 까맣고 콧물을 흘쩍거리는 친구들에게 바다와 기차, 해수욕에 대해 설명하며 살았다. 마치 몇 년 동안 여행을 했던 것처럼.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라 내 이야기는, 대부분 과장되었던 그 이야기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조금은 불안했다. 그리고 나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다. 형이나 누나 들처럼 산골짜기 마을을 떠나갈 준비를 했다. 어른들도 자식들이 당신들처럼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학교를 찾아, 직장을 찾아, 배우자를 찾아 산골마을을 떠나는 걸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다. 오대산, 계방산, 장군바위, 노인봉, 황병산, 능경봉, 대관령, 선자령, 피덕령, 발왕산, 용산,석두산, 사남산, 병두산……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느릅나무, 고로쇠나무, 피나무, 참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 오가피나무, 마가목, 낙엽송, 상수리나무…… 돌배, 머루, 다래, 잣, 나무딸기, 풀 딸기, 고무 딸기…… 산 더덕, 복령, 송이, 오미자…… 송이 눈, 함박 눈, 씨락눈, 진눈깨비, 길눈……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꿩, 산토끼…… 그리고 온갖 산나물들은 있어도 마땅한 거라고 여겼다. 그렇게 하나를 떠나갔다. 부모님들만 남겨놓은 채, 누나는 가까운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갔고 누나는 전 재, 문제, 비행기표를 넘어 서울로 떠나갔다.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고향을 잊었고, 고향마을의 앞산 뒷산을 잊고 살았다.

폭설이 퍼붓던 어느 해 겨울 나는 저자거리의 짐을 모두 트럭에 싣고 야밤을 이용해 홀로고향인 대관령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경운기를 끌고 나와 마을 입구에 버려놓은, 눈이 한 뼘은 쌓여 있는 짐을 옮겨 실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불을 때지 않아 냉골인 방에 아무렇게나 짐을 던져놓고 몇날 며칠 잠만 잤다. 죽지 않을 만큼만 밥을 입속에 넣으며, 바깥세상은 온통 눈뿐이었다. 그렇게 퍼붓던 눈이 그친 다음 날 나는 털 장화를 신고 가

바깥세상은 온통 눈뿐이었다. 그렇게 퍼붓던 눈이 그친 다음 날 나는 털 장화를 신고 가장 가까운 산부터 하나하나 오르기 시작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몸과 마음에 킁킁이 고여 있는 독기가 조금씩 빠져나갈 때까지.



장 가까운 산부터 하나하나 오르기 시작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그해 겨울이 끝날 때까지 대관령 능경봉, 선자령, 황병산을 묵묵히 걸었고 오대산 노인봉, 비로봉, 북대사로 가는 두로령의 눈길에서 숨을 헉헉거렸다. 몸과 마음에 켜켜이 고여 있는 독기가 조금씩 빠져나갈 때까지. 봄이 오고 꽃이 피자 자루를 둘러매고 연둣빛 산나물을 뜯으러 앞산 뒷산을 쏘다녔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산나물들은 변함없이 그 골짜기 그 비탈에서 자라고 있었다. 한 번은 날이 저무는지도 모르고 두릅을 따다가 멧돼지에게 쫓겨 한달음에 산을 내려온 적도 있었다. 가을이 저물어 갈 땐 아버지와 함께 잣을 따러 이 산 저 산을 옮겨 다녔다. 아버지가 높은 잣나무 꼭대기에서 잣을 딸 땐 밑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며 잣송이를 주웠고 내가 나무에 올라갈 땐 오직 떨어지지 않으려고 나무줄기를 부둥켜안았다. 나무 아래에서의 내 고민은 정말 하찮은 것들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렇게 산을 쏘다니던 계절들의 사이사이에서 책을 읽고 마음의 응어리를 겨우, 조금이나마 풀어버릴 수가 있었다.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였다. 그리고…… 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직 나는 산 아래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산 밖이 그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곱 개의 길고 짧은 터널이 뚫린 대관령을 빠져나온 버스가 서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볼 때면 마음 속 파도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칠랑거린다. 산 밖의 사람들이 이제 나 같은 건 잊어버렸겠지 하는 생각이 들 땐 어쩔 수 없이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오래 서성거리고 구절초와 흰 눈이 함께 날리는, 북대로 가는 두로령을 힘겹게 오른다. 그 고갯마루에 자리한 북대염불암 좁은 마당에 앉아 가쁜 숨을 고르다가 내려온다. 바람과 안개와 폭설이 가득한 대관령 정상에서 동해바다를 보다가 돌아온다.

그런 것 같다. 아니 그래야만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서 노래해야 한다고. 그것이 내가 넘어가야 할 산이라고.



김도연 소설가

겨울바다 이야기

바다

바다의 겨울이 깊어가고 있다.

겨울바다의 지배자는 북서계절풍이다. 대륙 깊숙한 곳에서 발달한 이 바람은 낮고 건조하게 태어났으나 서해 물기를 만나 대설주의보를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남하한다.

섬에 도착한 이 계절풍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고개를 움츠리게 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하고 두 눈을 저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 버린다. 바다는 수시로 돌풍이 일고 무수한 파도의 대가리가 휘쓸리면서 온통 흰 물보라로 변한다. 을씨년스럽고 삭막하여 바라보고 있는 눈도 시리기 그지없다.

밤은 한정 없이 늘어나 버렸다. 한 낮이라도 햇살은 적신하듯 드문드문 내려온다. 이곳 섬으로 시집을 온 아낙들이 자신의 결혼을 집중적으로 후회 하는 때도 지금이다. 그녀들은 자신이 두고 온 도시의 네온사인 불빛과 북적거리는 사람들의 온기를 떠올리며 몸을 떤다. 그나마 동지 지나고 부터는 낮이 길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 우리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하루에 쌀 한 톨 정도씩.

이 계절이 오면 섬 밑동을 잘라 낸 다음 모든 어선에 줄을 묶어 끌게 하여 저 남태평양 어디쯤으로 이동하고 싶어진다. 그곳에 닻을 놓고 한 계절 햇볕이나 잔뜩 쬐이고 싶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철새처럼 말이다.

어제는 술 한 잔 하자는 연락이 왔었다.

내가 살고 있는 섬마을에서 갈치 배를 하는 선배이다. 밤이 뒤덮인 길에는 찬바람만 불고 사람 하나 없었다. 몇몇 식당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가게는 문을 닫았다. 누구네 집에서 튀겨 나왔나, 빈 스티로폼 박스만 우당탕탕 뒹굴었다. 그 선배는 삼박 사일 동안 제주 아래로 어장을 다녀왔다. 갈치 잡으러 간 것이다. 갈치는 봄부터 여름까지 이곳 거문도 옆 백도 주변에서 주로 난다. 그도 그 시절에는 그곳으로 다녔다. 오후 4시경에 나가 밤새 고기를 낚고 아침에 수협어판장으로 돌아왔

海

다. 그러니까 출퇴근이 가능했다는 소리이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어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린 것이다. 쉽게 오고갈 거리가 아니어서 나홀간 바다에 떠있었다. 아주 모처럼 만이구나, 하는 모습으로 밥과 찌개와 아내를 앞에 두고 앉아있는 그는 그사이 머리가 더욱 세어졌고 눈동자는 작아져 있었다.

그는 오전에 갈치 상자를 내려 경매에 붙였다. 모두 180만원. 좀 별이가 되었느냐는 내 질문에 부부가 합심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 기간 들어간 경비와 인건비가 230만원. 그러니까 사일 동안 차가운 바다 위에 떠있으면서 (갈치 배는 물땃이라는 것을 내린다. 이를테면 물속의 낙하산 같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배가 쉬 흘러가지 않는다) 고기 잡고 밥 해먹고 잠잘 자다 돌아온 그 행보가 결국 50만원 버리러 간 셈이 된 것이다. 돈이란 게 이렇게 쓰일 수도 있었다. 유일한 별이를 굳이 말해보자면 어판장에서 우연히 만난 내가 얻은 고등어 몇 마리. 선배는 연거푸 소주잔을 비워내고 그의 아내도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마신 만큼 몸에 박혀있는 차가운 기운이 바깥으로 밀려나왔다. “이제 그만 접지 그래?”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한마디 거들었다. “돈도 안 되고 고생스럽기만 하는데 뭐 하러 자꾸 나가.” 선배는 대답이 없었다. 자신이 놀게 되었을 때 생기는 손익계산을 잠시 해보는 눈치였다. 별이가 안 되면 어장을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그는 경력 많은 선장임과 동시에 알아주는 술꾼이다. 일을 놓으면 얼마나 많은 술을 먹게 되는 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가 일을 멈추고 술잔을 쥐어버리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김치 지저 소주만 마시는 게 아니다. 마시다 보면 맥주집 카드 영수증도 심심찮게 주머니에서 딸려 나온다. 이곳도 대한민국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러면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 술꾼은 배우자의 잔소리 정도는 이미 초월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의 아내도 같은 방법을 써버린다. 아내도 유명한 술꾼이다. 네가 하는데 난들 못하겠느냐, 가 그녀의 원칙이자 자세이다. 남편이 일을 놓듯, 마음을 놔버리고 마셔버린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니 때는 물론 밤 깊은 시간에도 술병을 끼고 살아버린다. 그러면 남편이 밥을 하고 청소를 한다. 이번에는 남편이 잔소리를 한다. 결과는 같다. 아내가 더 이상 마시지 못할 정도가 되면,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 차례, 하면서 남편이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일주일 정도씩 상대가 했던 것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반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게 섬의 겨울 풍경이기도 하다. 자신

의 의지라기보다는 변방의 섬과 겨울 바다가 강요하는 어떤 것이다. 도둑자고 토굴에 들어앉은 사람이 아닌 이상 그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 내 방에서도 겨울에는 빈방이 더 많이 생긴다.

섬은 갈 곳이 많지 않다. 그저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며 모이고 흩어진다. 사람들의 짝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생긴다. 그들은 겨울 밤 내내 귀를 동냥하러 다닌다.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나도 종종 불러간다. 나야, 사람들 말을 들어주는 게 직업적으로 체질화 되어 있어서 그럴지러 버티긴 한다. 선배의 침묵은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니까 또다시 되풀이 될 풍경을 떠올리고 있던 것이다. 어장 갈 곳이 없지는 않다. 겨울철 어장은 대마도 인근에서 만 들어진다. 그곳에서 잡히는 갈치는 매우 크다. 어떤 때는 괴물에 가까운 것이 잡히기도 한다. 문제는 그게 늘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생스럽다는 것이다. 아니, 보장된 어장이나 고생스럽지 않은 뱃일 또한 애초에 없다. 진짜 문제는 고생의 강도이다. 그의 배는 그 지역 파도를 견뎌내기에는 작다. 배가 작다보니 선원들도 내켜하지 않는다. 그는 끽끔거리며 한동안 고민했다. 작년 이맘 때 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어차피 왔으니까
있어 봐요.
어떻게 곧바로
그냥 돌아가요.”
미친 겁에
미쳐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이다.
하긴, 여행이란
그런 것이다.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인생이 따로
존재하지 않듯
편안하고 재미있는
여행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최소한
겨울바람 속의 섬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 오전, 그의 배는 안전하게 묶여 있다.

어장을 나가든, 술로 한 계절 나든, 며칠간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결론 나지 않는 고민을 계속 할 것이다.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어장 나가는 쪽에다가 한 표 던졌다. 어쨌든 그의 직업은 어부 아닌가.

찬물샘은 방파제 너머에 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이는 곳이다. 물 받으며 보니 자그마한 어선들이 속속 들어온다. 아침 일찍 삼치 낚으러 나간 배들이다. 이 시간에 돌아온다는 것은 낚시를 포기한다는 소리. 역시나 파도가 높아지고 있다. 어선들은 수협어판장이 있는 이쪽으로 오지 않고 좌로 우로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간다. 한두 마리도 잡지 못한 모양이다.

여객선도 쫓기듯 들어온다. 나는 물을 실고 선착장으로 간다. 전날 택배회사에서 전화가 왔었다. 이곳 일반 택배는 자신이 찾으러 가야 한다. 이는 얼굴들 몇몇 육지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있다. 어떤 이는 고개 인사, 어떤 이는 눈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붉은 색 관광객 차림의 일행이 내린다. “뭘 한다고 이런 날 씨에 섬들 들어오십니까? 짐 받고 있던 주민 하나가 피식 웃으며 묻자 오십 대 여자가 대답을 한다. “그러게요. 와서 보니 우리가 미친거지 뭐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오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곧바로 배가 돌아가겠다는 방송이 나온다. 지금 떠나면 풍랑이 잦아든 뒤에야 다시 이 섬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날이 사나우면 육지는 훨씬 더 멀어져버리는 느낌이다. 관광객 일행도 잠시 술렁거렸다. 되돌아가자는 사람이 있다. 조금 전의 그 여자가 다시 대답한다.

“어차피 왔으니까 있어 봐요. 어떻게 곧바로 그냥 돌아가요.” 미친 김에 미쳐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이다. 하긴, 여행이란 그런 것이다.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인생이 따로 존재하지 않듯 편안하고 재미있는 여행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최소한 겨울바람 속의 섬을 맛보게 될 것이다. 등대까지의 도보가 끝나면 딱히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숙소에서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사람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화투 실력이 늘 수도 있다.

사람들은 내가 따뜻한 남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섬의 겨울은 이렇다. 이 시기에 내 방에 빈 병이 더 늘어나듯 산책의 길도 길어진다. 오후 산책은 바다가 길을 따라 등대 다녀오기 이다. 독한 시간대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독서와 걷기이다. 춥다고 사람들이 다 노는 것은 아니다. 겨울이 되면 모자반이

떠내려 온다. 노인들은 부지런하기도 하다. 모자와 목도리로 중무장을 한 채 갯바위 이곳저곳에서 모자반 줄기를 거뒀들 이고 있다. 모자반은 해초 중에서 가장 커다란 종류로 물고기 산란장 역할을 하는데 파도에 끊긴 것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다. 나는 잠시 쇠고기를 넣고 끓인 모자반 국을 떠올리고는 공연히 입맛을 다신다. 한바탕 일을 하고 난 노부부가 움푹한 곳에서 함판 쪼가리에 불을 붙인다. 의식이라도 치르듯 서로 고개를 맞대고 불을 켜다. 그 너머로 선착장에서 본 일행이 서있다. 그들은 붉게 핀 동백꽃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다. 그냥 돌아갔다면 동백꽃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늘이 지고 열매 맺었다가 낙엽이 지는 것으로 육지의 계절은 흘러간다.

바다는 바람이 바뀌고 찾아오는 어종이 변하는 것에 의해 일 년이 간다. 갈치가 가고 삼치가 오듯, 참돔이 물러가고 감성돔이 방문을 하듯 그렇게 바다의 시간도 주기를 갖는다. 저 아름다운 동백이 지고 나면 봄이 올 것이다.

추위가 혹독하다는 것은 저기 어디쯤 이미 봄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는가. 봄은, 이런 시간을 견뎌 낸 다음에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한창훈 소설가

드넓은 草原 이야기

이 세계를
조화롭게
묶어준다

“만중은 내가 옛날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이라네. 어렸을 적 밭에서 일할 때, 저녁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어쩌면 그렇게 할머니는 한 번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우리 일손을 멈추게 하고는 삼종기도를 올리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림 우리는 모자를 손에 꼭 쥐고서 아주 경건하게 고인이 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곤 했지.”

밀레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중」을 그린 연유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고 한다. 내 유년시절을 떠올려보면 어느 집이나 밀레의 「만중」이 걸려져 있곤 했다. 파리퐁이 내려앉은 벽에 걸린 가족사진의 옆자리에서, 아니면 시골집 뒷마루 귀퉁이에서 「만중」은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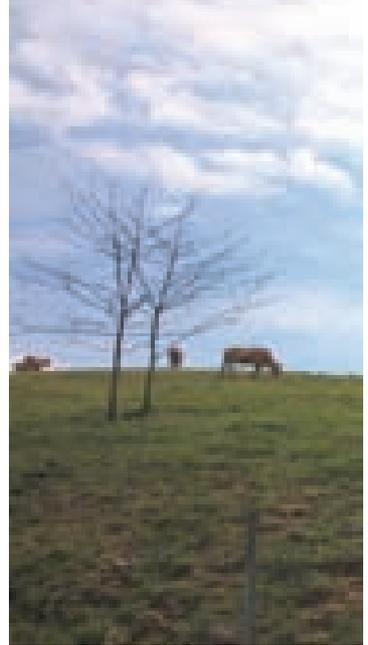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의 가난한 농촌에서 유독 이 그림이 사랑을 받았던 것은 어려운 농사일 가운데서도 잘살 수 있다는 희망과 평안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으리라.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되면 어른들은 초가의 이엉을 새로 엮었다. 초가는 2년마다 엮는데, 나는 바삭 마른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 짚가리 냄새가 너무 좋았다. 지붕을 새로 엮는 날에 썩은 새를 들추면 굼벵이, 노래기, 쥐며느리, 땅강아지들이 나타나고, 중풍에 걸린 윗집 노인이 약효에 좋다며 굼벵이를 잡아가곤 했었다. 오래 묵어 삭은 이엉을 삶아먹고 죽을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던 때였다. 박과 호박이 지붕 위에 달처럼 걸려 있는 가을밤도 그렇지만, 새로 엮은 이엉 사이로 차갑게 얼어붙은 은하수를 바라보는 것은 더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사실 내 유년시절의 들녘은 농사일의 신성함과 푸근함만으로는 부족한 공간이었다. 누구나 철이 들면 들녘을 가로질러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고 싶어 했다. 동네 어느 집에서나 서울로 올라간 누이나 형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다. 개발독재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일찍부터 기차소리를 들으며 철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에 흘러 들판을 떠났다. 어쩌면 동네 집마다 걸린 「만중」은 서울로 떠난 자식들의 평안을 고대하는 동네 어른들의 희망이 투영된 것에 다름 아니었으리라.

내 고향 전북 정읍의 산북리는 뒤쪽으로는 노령산맥의 지류가 흐르고 앞쪽으로는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곳이다. 동네 절인 정토사에 올라가면 평야지대 어디쯤에 계백장군의 황산벌이 보일 정도라는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한편 동네 옆쪽으로는 호남선 기차가 지나다녔다.

나는 정토사에 올라 들판을 바라보며 기차를 타고 도시로 가서 출



세하여 내 눈에 보이는 저 너른 평야를 다 사겠다고 다짐하곤 하였다. 그러니까 가난한 시골 소년의 꿈은 도시에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돈을 벌어들여와 들판을 사는 것이었다.

아마 내 또래의 고향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있었으리라. 초등학교 3, 4학년만 되면 동네 친구들은 마을을 가로질러 아득히 들녘으로 사라지는 호남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출하여 공장에 다녔다.

그러나 그 친구들 역시 서울살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와 들판을 사겠다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인 것인가.

나는 이제 들녘의 냄새를 잊어가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잊어가고 있다. 어느새 나는 도회지의 한 부속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끝없는 벌판길을 걸어가며/누이여, 나는 수수모가지에 매달린 작은 씨앗의 솟발 같은 것을 생각하였다./가고 가는 우리들 생의 벌판길에는 문드러진 살점이 하나, 피가 하나, 버린 대로 자라나서 이제 벌판을 흔들고 지나가는 무풍(無風)의 바람이 되려고 한다.”

“끝없는 벌판길을 걸어가며/누이여, 나는 수수모가지에 매달린 작은 씨앗의 솟발 같은 것을 생각하였다./가고 가는 우리들 생의 벌판길에는 문드러진 살점이 하나, 피가 하나, 버린 대로 자라나서 이제 벌판을 흔들고 지나가는 무풍(無風)의 바람이 되려고 한다.”

제 별판을 흔들고 지나가는/무풍(無風)의 바람이 되려고 한다.”
(박정만, 「해매는 별판」중에서)

그러나 들녘의 자식들은 결코 들녘을 자신의 삶에서 지워내지 못한다. 도회지에 살 때는 모르지만 정작 고향에 내려가면 누군가 오래 기다리다 깊이 안아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저무는 십이월의 저녁답에 겨울별판을 사내 하나가 홀로 걸어간다. 별판에서는 새 소리 흘러내리고 겨울수수밭머리에서는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아직도 수수모가지에 핏방울처럼 맺혀 있는 작은 씨앗에서 절망 가운데서 피어오르는 촛불 같은 희망을 느끼며 사내는 겨울별판을 휘적휘적 걸어간다.

정읍의 시인 박정만의 「해매는 별판」을 읽고 있으면, 거기에 내 모습이 오버랩 된다. 나 역시 들판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일찍이 고향을 떠났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기차를 타고 다시 고향집에 돌아가곤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몇 해가 지난 이번 겨울, 나는 신대인역에서 내려 아버지의 무덤까지 걸어갔다. 그 겨울별판을 걸어가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가. 겨울 들녘에 서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지 않아도 문드러진 살점과 피 하나로 버린 대로 끈질기게 자라나는 수수대처럼 삶은 지속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소리 없이 별판을 흔들고 지나가는 무풍의 바람 속에선 나의 어린 시절을 키워낸 다정한 사람들의 음성이 배어 있다.

겨울들녘을 가로질러 아버지의 무덤을 향해 가는 동안 나는 마을에서 밥 짓는 연기가 공중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다. 허공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멈춰선 밥 짓는 연기. 고은 시인은 저물 무렵 밥 짓는 연기를 보면 절하고 싶다고 했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노모마저 도시의 자식들에게 몸을 위탁한 뒤부터 고향집은 빈집이 되었다. 그래도 고향 마을의 밭가에 아버지의 무덤이 있기에 기차를 타고 내려와 들판을 거닐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들녘에서 일을 하며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이 없지만 그분들의 흔적은 남아서 나를 겨울별판에 서게 한다.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의 무사를 달에게 빌었던 「정읍사」의 여인처럼 고향의 들판은 서울살이에 지쳐 돌아오는 사내를 넉넉하게 품어 안아준다.

그리고 들판에는 멀어질만하면 무덤이 있다. 농사일을 하다가 들판의 무덤에서 낮잠을 자는 농부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조상의 무덤이 들판에 있기에 농부들은 일을 하다가도 힘들면 무덤에서 쉬

내 고향
전북 정읍의
산복리는
뒤쪽으로는
노령산맥의
지류가 흐르고
앞쪽으로는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곳이다.
절인
정토사에 올라가면
평야지대 어디쯤에
계백장군의
황산벌이
보일 정도라는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草原

며 새참을 먹고 조상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내 아버지의 무덤도 고향의 밭가에 있다.

아버지는 평생을 농사만 지으시다가 죽어서도 밭가에 묻혀서 자신이 돌보던 땅과 연결되어 있다.

나 역시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지만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한 언제나 들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들판은 이 세계를 조화롭게 묶어준다.



박형준 시인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五車之書)

금서(禁書) 이야기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Steady Seller)의 대명사인 <성서(聖書)>와 <삼국지>가 한때 금서로 지정되어 읽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금서는 사상과 종교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와 함께 수난과 핍박으로 얼룩져 있다가 중국에는 불후의 고전(古典)으로 대접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금서를 일반적으로 정의해보면 발행금지 되거나 발매 금지된 책을 말한다. 이처럼 출판물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책이 갖고 있는 속성 중의 하나인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데 책만큼 효과가 큰 것이 없다는 특성 때문이다.

일례로 오죽하면 금서도 모자라 분서(焚書)까지도 한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보면 알 것이다.



BOOKS

중국의 진시황은 역사상 책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일 것이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제는 주왕조의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의 군현제도를 채택했다. 8년 후 함양궁의 잔치에서 순우월이 당시 군현제도를 다시 봉건제도로 개체할 것을 진언했다. 시황제는 일단 그 의견을 조정의 공론에 붙였으나 철저한 법가로 일관한 군현제의 입안자인 승상(丞相) 이사(李斯)는 그에 반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옛 책을 배운 사림들 중에는 그것만을 옹기 여겨 새로운 법령이나 정책을 대해서 비난하니 차제에 사적인 학문으로 정치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동을 본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그런 선비들을 엄단하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책과 진나라 역사서 이외의 모든 책을 불태우고 <시>, <서> 백가어를 소장한 자는 30일 이내에 모두 관아에 신고하여 불태워 버릴 것을 진언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져 분서갱유가 시작 되었는데 특별한 사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요새로 말하자면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시황제의 분서갱유는 중국은 물론 동양문화 전체에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에 의해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억압되

는 최초의 선례가 됐던 셈이다. 이로 말미암아 동양인은 전통적으로 획일적 사고에 길들여졌으며, 2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폐단으로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다원화 사회를 지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서는 문자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금서가 발생하는 유형은 대충 몇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는데, 첫째 반체제적인 정치관계의 책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종교적인 갈등의 이른바 계파별로 이단적인 책을 들 수 있다. 셋째 천체에 관한 책이 금서로 규정된 경우도 있다. 특히 우주나 지구에 관한 내용은 인류의 생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이유로 읽지 못하게 한 것이다. 넷째로 음란물에 관한 책이다.

예컨대 D.H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문학성이 높은 예술적인 책을 음란으로 몰아붙여 금서를 만든 경우가 허다하였다. 다섯째 사상적인 측면에서 금서를 들 수 있으며, 여섯째 고발문 학 또는 폭로 문학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분류해본 여섯 가지 이외에도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 종류의 책이 금서로 지정 되었던바, 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금서라는 허울 좋은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금서에 대한 역사는 중국이나 서양에 비해 길지 않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외세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리민족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고 치욕과 왜곡의 굴절 속에 외세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우리 민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일을 남이

안중근의사는 독서에 관한
명언을 남기셨다.
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이라 하여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다.
책을 곁에 두고 사랑하는 것을
비록 책을 읽더라도
읽으려는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는 것이다.

대신 해준 적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서의 역사는 이러한 근현대사의 과정 속
에서 나타난 현실 및 그 왜곡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주독립이나 민족주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금서로 지
정 되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금서는 있었지만 대부분 통치세력
과 지배층을 흔들기 위한 비기(秘記)나 도참서(圖讖書)들이 주류
를 이루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피지배층이 통치세력에 맞서 변
혁의 내용을 책에 적어 전파 했을 때 지배세력은 이를 일반 백성
들이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근현대사 과정 속에 가장 많은 관금도서 목록을 만들어 금서의
역사를 빚낸 시기는 아마 일제 강점기와 5.16혁명이후 탄생한 3
공화국에서 5.18민주항쟁의 제5공화국까지 일 것이다. 남으로 된
서양 활자(연활자)를 사용하는 현대식 활판 인쇄술이 우리나라
에 도입된 것은 1883년(고종20년)으로 이 땅의 현대출판이 이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현대출판사상 최초로 금지처분을 받은 문학책은 안국선의 소설 <
금수회의록>이다. <금수회의록>은 1909년 5월 출판법에 의해 압수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판매금지 된 소설이 되었다.
<금수회의록>은 현대적 출판물이라고 하지만 요즈음의 웹플릿
과 비슷한 국판 40면의 딱지본으로 1908년(융희2년) 2월 황성서
적업 조합에서 펴냈다. 금수를 빚낸 신랄한 풍자 속에 일본의 대

BOOKS

한(對韓) 정책과 친일정부 대신들을 비판함으로써 치안을 방해 하였다는 이유에서 금서로 지정한 것이다. 일제는 풍전등화인 대한제국을 합병하는데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던 것이다.

일본 식민지 통치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글자 그대로 암흑시대였다. 사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 기간 동안에 완전한 암흑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제는 한국인을 영원한 식민지백성으로 부러먹기 위하여 한국정신을 박멸시키고자 했으며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한국말로 된 책을 전부 금서로 취급하고자 했다.

한 나라의 말과 글을 못하게 하여 모든 책을 금서화 한 것은 인류역사상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적 탄압행위이다. 일제가 한국정신을 진작시키는 책을 금서조치 한 것은 식민지시대 36년간이 아니라 실질상으로는 을사보호조약 이후부터 민족 의식이나 조선의 주권을 강조하는 책을 소각·압수 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은 40년이 넘는다.

일제는 한국의 주체적인 민족사상은 물론, 자유주의 사상 관계 또는 사회주의사상 분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족보나 만세력 같은 출판물까지도 한국인이 찍어내는 것에는 금서의 딱지를 붙였다. 이것은 일제의 문화행위, 혹은 조상숭배 행위까지도 말살시키고자 했던 만행이라고 할 것이다.

일제는 이런 만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로 1909년 2월 출판법을 공포하면서 사전검열제도가 확립되어 체계적인 금서 정책이 시행 되었다. 이때의 대표적인 금서로는 앞에서 말한 을사조약을 규탄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과 신교육과 개화사상을 고취한 이해조의 <자유종>, 민족주의를 고취한 신채호의 <을지문덕>과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

혈사>등을 들 수 있으며, 그밖에 <월남망국사>, <미국독립사>등 외국의 역사책, <유년필독>과 같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교과서, 심지어 조선왕조 시대의 창가집에까지도 금서의 횡포를 부렸던 것이다.

일제의 통치가 본격화되면서부터는 민족 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금서의 주요대상이 되었다. 이봉창, 윤봉길, 최홍식, 유상근 의사의 의거를 다룬 김구의 <도왜실기>는 1932년 중국어로 처음 간행되었고 1942년 국내에 한글로 번역되었는데 치안을 이유로 국내반입 불가와 독서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일제 침략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사와 일반 근대사를 서술한 박은식의 <한국통사>도 상해에서 출간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치안을 이유로 반입 불가와 독서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일제는 이 책을 절멸(絶滅)하려 했다. 우리나라 계몽주의 소설의 최고라 일컬어지는 이광수의 <흙>도 치안을 이유로 금서가 되었다.

금서도 책 수집가에는 매력 있는 헌팅대상이다. 필자가 금서를 처음 접한 것은 1970년 5월 <사상계(思想界)>에 실린 김지하 시인의 담시(譚詩) <오적(五賊)>이 필화(筆禍)사건이 되면서 사상이 폐간이 되었는데 폐간호가 된 그 잡지가 금서로 되면서 귀한 책이 되었다. 1975년쯤인가 인천배다리 헌책방에서 그 귀한 책을 50원 주고 사게 되었다. 그 후 금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내수집 품목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사상계(思想界)>는 1953년 4월 제야에 있던 백낙준과 장준하가 사재를 털어 만든 잡지였는데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싸우는 양심세력을 대변하는 잡지가 되었다.

민족통일문제, 민주사상의 함양, 경제발전, 새로운 문화 창조, 민족적 자존심의 양성을 편집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당대 지식인층과 학생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사상계>를 폐간으로 물고 간 김지하 시인의 <오적>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상을 풍자적인 문체로 인하여 필화로 비화되었고 급기야는 김지하를 비롯한 출판에 관계된 사람들이 반공법(지금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되었다. <오적>은 장시로 앞부분 일부를 소개하면 「



시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똑 이렇게 쓰랴다. 내
어찌다 붓끝이 험한 죄로 칠전에 끌려가 불기를 맞
은지도 하도 오래라 삭신이 근질근질 방정맞은 조동
아리, 손목맹이 오물오물 수물수물 뒤편 자꾸 쓰고
싶어 건널 수가 없으니 예라 모르겠다 불기가 확확
불이나게 맞을때는 맞더라도 내 별별 이상한 도둑이
야길 하나 쓰겠다。」로 시작된 이 시에서 금지하는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5종류
의 도적이라고 거론하고 도적이 저지르는 부정과 부
패, 탐욕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특히 다섯도적
을 표현하는데 한자를 사용했는데 한자마다 개견
(犬) 자가 들어가는 풍자의 극치를 이룬 작품으로 평
가 받았다.

이후 나는 금지하 시인의 작품이 실린 잡지의 판금
본인 <비어(1972.4월창조지계제)>, <나폴레옹꼬냑
(1972년 9월 다리지 계제)>, <앵적가>, <구리 이순신
>, <이주까리 신풍>, <분씨물어(똥바다)> 등의 판금

본을 구하여 내 서가의 중요한 곳에 자리를 잡게 했다. 1961년
5.16 군사 혁명 이후 탄생한 제3공화국부터 김영삼 대통령의 문
민정부 이전인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까지는 이념 서적이
금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성향은 72년의 10월 유신을 거쳐, 80년대의 제5공화국에 이
르러 더욱 심해졌다. 80년대에는 민중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당
시의 군사독재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담은 다양한 출판물이 제
작·배포 되었으며, 이에 비례하여 탄압의 강도도 그만큼 커졌다.

제5공화국정부는 1970년대 이후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을 폐간시켰으며 제3세계 이론
을 다룬 책, 한국 경제의 전개과정을 다룬 책, 마르크스주의에 관
한 책, 노동자의 실태를 소개한 책 등 대학가에 널리 읽혀지던 책
들을 일정한 기준도 없이 모두 이념서적으로 규정하여 판매를 금
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85년 5월에는 문공당국과 경찰의 합동 단속반에 의해 “이념서
적”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제
5공화국의 금서정책은 정부가 금서목록에만 오르면 책이 더 잘
팔리는 기현상을 낳기도 하였다.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이념서적
에 대한 금서는 많이 완화되고 필화사건의 주된 주제가 세간의
화제를 일으키는 음란물이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줄어
들었지만 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잣대가 강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92년에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
운 사라>와 1996년 소설가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들
수 있다. 이 두 책은 판매금지와 함께 작가들이 기소되어 구속되
었고 각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즐거운 사라>는 성에

BOOKS



묘사의 에로틱이라는 관점보다는 여대생인 시라라는 여자의 방종 즉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가 너무 현실과는 괴리가 컸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여겨지며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봐야겠다. 아무튼 절판 판금본의 양대 산맥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이 책은 현재 시장에서 고가에 가격대가 형성 되었고 수집가들이 혈안이 되어 찾아 헤매는 금서계의 귀족 대접을 받았다.

비교적 최근인 2008년에 국방부에서 대중서, 교양서, 베스트 셀러를 가리지 않고 불온서적으로 선정군대에 반입을 금지해 왔음이 밝혀졌다.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 자본주의 등의 사유로 묶인 책은 23권 이었다. 그중에서 장하준 교수의 <나쁜 시마리아인들>이 끼어있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잘못이 많으니 그 허점을 잘 살펴보고 적절

히 대처 하라는 충고성의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책이 금서가 되었는지 궁금해 왔고 국방부의 금서지정 덕분에 많이 팔려 베스트셀러가 되는 쓸쓸한 풍경도 연출 되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금서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 사실 우리가 책을 마음껏 출판하고 책을 마음껏 소지하고 책을 마음껏 읽게 된 것도 그리 긴 세월은 아니다. 그러나 금서가 없었다면 지금의 만주주의도 없었을 것이다. 금서는 그 시대의 아픈 곳을 드러내는 상처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희망이기도 하다.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금서로 쓴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동서고금을 통하여 금서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 사실 우리가 책을 마음껏 출판하고 책을 마음껏 소지하고 책을 마음껏 읽게 된 것도 그리 긴 세월은 아니다. 그러나 금서가 없었다면 지금의 만주주의도 없었을 것이다. 금서는 그 시대의 아픈 곳을 드러내는 상처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희망이기도 하다.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금서로 쓴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국의 교육과 아동 청소년의 행복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OECD 회원국(40개국 대상 조사)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 실시된 국제 학업성취도 조사(PISA)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읽기 능력 1위(2003년 3위), 수학 능력 1위(2003년 3위), 과학능력 7위(2003년 4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학습동기, 흥미 등 정적 태도는 매우 취약하고 학교 소속감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PISA에 따르면, 수학에 대한 흥미는 31위, 동기는 38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 PISA에서 나타난 학교 소속감의 경우도 가장 낮아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 출석률도 높지만 학교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좋은 학업성취도의 이면에는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OECD(2006)에 따르면,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15-24세 청소년 중에서 만족한다(1-10점 중 7점 이상)는 응답비율은 44.9%에 불과하였다. 한국과 함께 학업성취도 최상위권을 점하고 있는 핀란드의 동일한 응답비율은 81.6%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입시 경쟁을 보여주는 일본도 50.3%로 한국보다 높게 나타



**진정한 선진화는
경제적 지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선진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볼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다른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 교육문화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초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세계 각 국의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24세 청소년 인구의 평일 하루 24시간 중 학습 시간은 4시간 55분으로 핀란드(1:48)나 스웨덴(1:33) 등 북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2:30)이나 영국(0:50) 등 영미 국가들보다 훨씬 길었다.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도 유사했다. 각 국가별 15세 청소년들의 일주일간 수학 관련 학습시간과 수학성적을 비교해 본 결

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주간 8시간 55분 동안 수학 공부를 하고 542점을 얻었는데 가장 높은 수학 성적(544점)을 보여준 핀란드 학생들의 공부시간은 4시 22분에 불과하였고 한국 다음인 일본(534점)도 6시간 22분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성적이 낮은 미국(483점)의 공부시간이 7시간 30분으로 비교대상 국가 중 한국 다음으로 길었다.

정규수업시간이야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터무니없이 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 열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PISA 자료에서 전체 학습시간 중 사교육시간만을 분리해 살펴본 결과, 일주일간 평균 수학공부시간은 1시간 59분으로 핀란드(3분), 일본(22분), 미국(19분), 영국(16분) 등 선진국보다 매우 길었다. 이는 사교육시간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최장 학습시간의 원인임을 보여준다. 한편, 비교대상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사교육시간이 길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사교육시간이 길어 학업이 뒤 떨어지는 학생들이 보강 차원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왜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게 되면 학업 격차가 더 벌어지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수면, 식사시간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시간이나 운동이나 다양한 체력, 봉사활동과 같이 청소년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은 어떻게 배분하고 있을까. 앞선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15-24세 수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짧았다. 그 격차도 매우 커서 한국보다 수면시간이 1시간이상 길지 않은 나라는 독일뿐이었다. 운동시간의 경우 한국은 평일 하루 24시간 동안 13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7분인 미국이나 26분인 스웨덴, 22분인 핀란드에 비해서 매우 낮았다. 참여 및 자원봉사시간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평일 하루 24시간 중 1분만을 할애해 11분인 독일, 8분인 미국, 7분인 핀란드, 5분인 스웨덴, 영국보다 낮았다.

학습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본분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이 시기에 꼭 필요하고 경험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힘들다. 동시에 PISA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유사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



핀란드,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의 긴 학습시간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학 및 기업의 선발방식은 청소년의 생활패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신규 채용이 학벌 위주로 출신 대학을 중시하고 성적이나 점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역시 입학사정관 등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과목 위주의 성적과 능숙시험을 중심으로 대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와는 달리 선진국들은 대학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대학서열화는 입시경쟁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으나 선진국 대부분은 단선적인 서열구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소수의 특정 최상위 대학에 대한 입시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선발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학업능력 외에 다양한 비학업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차이는 선진

국의 초중등교육단계에서 교과 외 활동,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기업의 채용방식의 변화, 입학사정관 도입 등 대학 입학제도의 변화 등으로 교과목 위주의 성적 중심, 입시위주 교육에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및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운동시간 등을 늘리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진화'라는 말이 참여정부 시기 국가비전 2030이라는 미래 전략을 제시할 때 중요하게 활용된 이후 현재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선진화는 경제적 지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선진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왜곡된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은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이루어 냈지만 불행한 삶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문화와 삶

이제는 가히 문화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문화는 순수 예술에서 산업화된 분야까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 가치와 효용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개인에게는 정서의 고취와 창의력의 증진, 감수성과 심미안의 계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양상은 개인의 환경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일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쁨의 단비와 같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예술은 물과 공기처럼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 평소엔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공연을 보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당장에 생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 하여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데 웬 호사냐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남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더 일하여 경쟁에서 앞서는 것이 최선의 덕목이요, 실효적 가치가 우선인 분위기에 익숙하다. 그러니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장은 급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화예술의 효과성은 그 속성상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법이기에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원하는 환경에서는 중요하기는 하나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정책에서나 개인의 생활에서나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인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처지도 별반 다를 바 없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뽁뽁한 수업시간만도 버거워서 자율학습이다 학원이다 바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

혹여 뭘 취미라도 붙이려면 공부에 방해된다고 불호령이 떨어지기 일쑤다. 본격적으로 예술을 전공을 하려는 학생은 그 순간부터 아예 탄 세계 친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니 어렸을 적부터 체계적으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할 기회는 아예 원천봉쇄되는 형국이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그런데 양질의 문화예술은 마치 좋은 술이 오래 묵어야 그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오랜 축적의 산물이다. 마약이나 특효약처럼 특단의 조치로 단박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예술적 소양도 어느 날 갑자기 관심을 갖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고 한꺼번에 그 경험치를 늘릴 수도 없다. 문화예술 향유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과 체험이 병행되어야 길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경영에서 “한 사람의 좋은 관객이 길러지는 데에는 한 명의 예술가가 탄생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안 정책적으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예술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공급자 위주의 환경에서 살아왔다. 즉 예술가를 길러내고, 문화시설을 짓고, 문화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일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이른바 “예술교육”이라 하면 이런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기능적 교육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향유자 위주의 정책과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단순한 소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소위 좋은 관객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환경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로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그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에 존재하는 문화공간과 기관들이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지역에 기반한 많은 시설과 단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내용도 주입식 강습이나 취미 생활 수준을 넘어서 점차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들 외에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이주여성, 군인, 재소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나 특수한 환경에 있는 대상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공공지원과 지역사회의 의지 그리고 문화계의 노력이 잘 어우러진 덕이라 볼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제공은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의 소양과 이해도를 높여 그 향유의 폭과 깊이를 더하게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관객을 육성하여 저변을 두텁게 하는 이른바 미래 고객의 창출에도 기여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적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문화예술 향유에는 인식해도 교육적인 의미를 강조하면 더욱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 이른바 <창의도시> 또는 <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각 도시와 마을 등 지역이 보다 문화적인 방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시설과 예술 활동 위주로 펼쳐지던 문화정책이 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은 특히 우리나라같이 아직 지방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에서는 대단히 소중하고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다름이닌 개인에게는 문화향유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전반적인 문화적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역과 문화원의 역할

그런데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그 인프라가 척박하고 전반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지역의 기반한 문화단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가 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전국 시군구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 풍부한 경험이나 지역과 밀착된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은 문화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원은 물리적인 공간과 함께 사무국의 행정능력과 프로그램 수급 그리고 강사의 안정

적인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점차 그 대상이 많아지고 프로그램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을 때 아무래도 그 요구를 독자적으로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존 문화원의 장점을 살리면서 지역의 관련있는 기관이나 문화공간 또는 문화단체가 필요한 영역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강원도 평창의 평창문화원과 지역의 문화단체와 공간의 협력 체계는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창문화원은 몇 년째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노인과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민요 평창아라리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단조로운 연습 위주의 모임에서 공연, 음반, 영상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보다 그 활동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상 점차 늘어가는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과 가정을 위한 <지구촌 아낙의 명석을 깔아드립니다>라는 이름으로 다문화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이주여성과 가족은 정기적으로 모여 한국문화와 생활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음식도 만들어 나누며 이국 생활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글교실에서 전반적인 문화교육을 물론 직접 전통 모듬북 합주단을 만들어 공연까지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창의적 네트워킹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와 역할이 서로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가능하다. 양질의 교육콘텐츠와 강사의 확보, 대상의 적극적인 참여, 지자체와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의지 등도 중요하지만 크지 않은 지역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려는 체계가 절대적이다. 이른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관계 맺기와 협조의 수준을 넘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창의적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평창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비교적 잘 수행될 수 있는 데에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과 기관, 단체들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개방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업의 계획과 운영은 평창문화원이 주도적으로 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자문은 전문 문화단체인 감자꽃스튜디오가 지원하고, 그 대상을 주관하는 것은 국제가정협의회와 평창아라리 보존회 등이 나누어 맡고 있

다. 협소한 문화원의 공간 제약을 넘어 지역의 폐교를 개조한 감자꽃스튜디오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으며 면사무소 복지회관과 읍내의 평창문화예술회관이 유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평창군과 각 읍면사무소, 그리고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각 주체가 기 확보한 지원 예산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중복투자 와 비효율을 막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원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다른 유관 기관들이 화답하여 보완하고 협력하여 서로의 부담은 나누고 그 결실은 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주체들 간에는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협조 체계 및 호의적인 관계의 설정이 있었다. 진정으로 긍정적인 창의적 네트워킹은 단순히 “업무협조”나 “공간제공” 수준을 넘어서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하며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어 최선의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의 중심에 문화원이 서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의 문화적 리더쉽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평창에서 감자꽃스튜디오와 문화원,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화 단체와 지자체의 네트워킹 모델은 모범 답안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선철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부지 초등학교를 보는 것 같았다.

작년에 한번 진행해 본 사업이라 조금은 여유롭게 출발 했으나,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문화가정 또는 이주민들의 삶의 문제들이 큰 장벽으로 다가 왔다. 어느 날 이주여성들의 자녀를 돌보던 분이 어떤 딸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애의 웃음 곱광이가 피어있었다.

너무 놀라 부랴부랴 어머니를 찾았더니 베트남에서 시집온 지 3년 된 사람이었다. 직접 말을 하지 않아 주변 친구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1년 전에 사고로 죽고 혼자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옷도 주변 이주여성들에게 얻어 입히고, 변변한 신발 하나 없었다.

간사를 시켜 신발, 양말, 옷을 사서 입혀주니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먼 타국에서 남편만 믿고 시집왔다가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막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다.

시택이 가까운데 있으나 잘 찾아오지도 찾아가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2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이 지날 무렵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 이야기로는 한국말은 조금 하는데 그동안 한글을 몰라 취직을 할 수 없었는데 문화원에서 고작 2개월 배운 한글 실력으로 식당에 취직을 했다고 했다.

나는 가슴이 아파 한숨을 쉬는데 그 친구들은 문화원에 와서 한글 배워서 취직했다고 좋아하더라는 것이었다.

좋아해야 할지 아파해야 할지 마음이 뒤숭숭하였다. 어느 날은 남편이 아내의 손을 이끌고 문화원으로 들어와 “우리 미누란데 한글 좀 켈차 주이소, 문화원에 오면 아무나 켈차 준다 카데에” 그렇게 수강생이 된 후 얼마 후 남편이 눈을 부릅뜨고 나타나서 “우리 미누라 도망갔어요. 우리 미누라 찾아 주이소” 시어머니가 잠은 조개를 친구 집에 가져다 준다고 나와서 사라진 것이었다.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내라고 했더니 “경찰서 갔다 왔어요, 저그도 우짚 수가 없답니다” 그 사람을 달래서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이주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여성들이 돈 벌면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왜 그러나 물었더니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술주정한다, 남편의 구타, 시집 식구들의 편견, 주변사람들의 굽지 않는 시선 등 많은 이유들이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지만 늘 아쉬운 이유는 지역민들의 편견과 곱지 않는 시선, 아직도 지역 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70%의 이주민, 다문화 사업을 실적으로 삼으려는 사회단체들 때문일 것이다. 이제 지역 사회도 다문화 가정을 인정하고,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주민들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하게 형성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가정폭력, 자녀교육등 가족 상호간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한국문화, 한글교육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문화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여야 한다.

물론 더 많은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들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어떤 남편은 아내가 술 먹는 걸 싫어해서 술을 끊었다고 했다.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의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지지 않을 거라 했는데 올해 여름 드디어 소원하던 아이를 가졌다고 좋아하는 이주여성도 있었다.

다문화 사업을 진행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 문화이해교육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문화이해 수업 중 속담이나 격언에 대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삶의 방식이 이주여성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 제사를 지내는지, 제사 음식은 왜 그리 많은지, 친척들은 왜 다 부르는 이름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이 다른지, 왜 시어머니는 하면 안 된다가 많은지...

이주여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더니 불과 며칠 후 이주여성이 나에게 자랑하듯 어제 제사였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음식 하는데 피곤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환하게 웃는 것이다.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식 삶의 방식을 주입 시킬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해결의 살마리는 다문화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남편들이 가족들에게 다문화 가정이라는 자제를 인식시키고 이해 시켜야 한다. 그러한 변화가 없으면 다문화 가정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 곧 그 2세들을 통해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 될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돌출되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문화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다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은 그러한 노력이 첨가된 계획을 통하여 더 알차고 보람된 다문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지만 늘 아쉬운 이유는 지역민들의 편견과 곱지 않는 시선, 아직도 지역 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70%의 이주민, 다문화 사업을 실적으로 삼으려는 사회단체들 때문일 것이다. 이제 지역 사회도 다문화 가정을 인정하고,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주민들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하게 형성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가정폭력, 자녀교육등 가족 상호간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한국문화, 한글교육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문화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여야 한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한다.

눈이 내려 짜증나는 사람도 있지만 낭만에 젖고 추억에 젖는 사람들도 있다.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의 문제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도 많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니 뿌듯함 보다는 허전함과 미련이 더해진다. 수입이 적어 쥐포공장에 일하러 다니는 브이명마이, 어느덧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적으나마 월급을 받는 윙티투타우, 레티응언, 아나수피아나등 많은 이들에 대한 추억이 떠오른다.

야유회를 갈 때마다 생선회를 한 상자씩 가지고 오는 남편, 녹차체험 할 때 거의 혼자서 모든 녹차 잎을 볶던 남편, 임신한 아내가 밥 먹기 싫다고 야유회 때 도시락도 없이 나온 남편, 모두가 늘 행복하기 기원한다.

사천문화원의 [2009년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교육이 그들의 삶과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에 조그마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대원 사천문화원 사무국장

골목에서 피어난 문화꽃무더기, 금천예술공장



독산동의 한 골목을 걷는다.

눈 쌓인 길 위로 마을버스와 사람들이
가로세로 흔적을 남긴다.

하루 24시간 돌던 공장이 즐비했던 이곳은
이제 지나는 발자국들만이 선연히 찍힌다.

골목네거리 가게에서

뜨끈한 두유를 하나 손에 쥐고 본다,
건물 위의 그를.



공장 더하기 예술

컨테이너 박스 위 거대한 철제 골격의 로봇은 이기일의 작품 '아트로봇'이다. 높지 않은 건물 위로 비죽이 솟은 그의 시선은 하늘에 닿는다. 쓰레기봉지를 내놓으려 슬리퍼를 신고 나온 사이, 오랜만에 친구 집에 들른 사이,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그의 얼굴이 맞닿는다.

이것이 지난 2009년 10월 서울시창작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태어난 '금천예술공장'의 얼굴이다. 소위 말하는 문화거리도 아닌 독산동의 골목에서 이런 마주침은 낯설고 또 즐겁다. 아트로봇의 걸을 지나쳐 금천예술공장으로 걸음을 옮겨본다. 금천구 독산동의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글로벌 미학과 지역성을 실험하는 국제 레지던시이자 공동 프로젝트 스튜디오를 지향하는 신개념 예술공장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부속창고까지 연면적 3,070㎡의 규모다. 국내의 입주예술가와 22개의 스튜디오, 호스텔, 공동작업실 등을 갖추고 층마다 입주예술가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조리실, 샤워실까지 구비되어 있다.

열린 공간 즐기는 공간

물론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번거로운 과정 없이 누구나 돌



러볼 수 있다. 단, 입주자가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만큼 내방 시 경비실에서 미리 양해를 얻고 들어가야 한다. 1층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복도로 사무국의 사무실이 있다. 그곳을 통과해 들어가면 조리실이 보인다. 노랗게 칠해진 벽이 인상적이다.

이곳에서는 냉장고, 조리도구 등이 갖추어져 있어 입주자들에게는 훌륭한 조리실이 된다. 계단을 따라 오르다보면 이색적인 조형물이 보인다. 어릴 적 봤던 이발소 간판 같기도 하고, 놀이동산에 있을 법한 탑 같기도 하다.

이 작품은 해외작가인 안드레 헤머(Andre Hemer)의 작품이다. 기둥의 색색 띠와 어우러져 모던한 건물에 재미를 불어넣는다. 3층 창가에 전시된 투 반 트랑의 (thu van tran)피아노도 숨은 재미중의 하나. 피아노의 반이 섬세한 조각으로 마감되어 있어 건반과 내부구조가 훤히 보인다. 큰 창으로 해가 드는 장소에 있어 더욱 인상적이다.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는 곳은 무엇 인고 하니 우편함이고, 티슈박스 같은 게 많았다 붙어 있어 보니 작은 명패 기능을 하나보다. 작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작가와 작품, 공간과 주민의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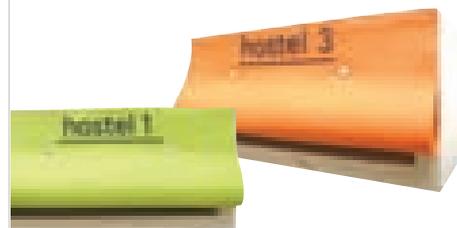
마침 박능생 화백을 만나 방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 발짝 들여놓으니 그곳은 외부와는 또 다르게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창가의 침대, 그 옆으로 작업책상, 그리고 사방의 벽면에는 그의 작품들이 즐비했다. 그야말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보였다. 촬영에 응하면서 '이렇게 찍어 가면 나는 안 나오고 작품하고 내 뒤통수만 나온단 말이야' 하며 깔깔 웃는 그의 여유가 방의 공기와 어우러진다.

이렇게 해외작가 뿐 아니라 국내의 작가들에게까지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문은 개방되어 있다. 이처럼 이 공장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무대, 작업실,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작가가 뿐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공간이다.

공장들이 즐비했던 거리에 로봇이 서고 색색의 전구에 불이 들어올 때 앞집의 김 씨는, 가게집의 아무개 아주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즐거운 일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해주시는 것이었어요. 또한 작가와 주민들이 만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었죠. 이 공간이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이죠." 금천예술공장의 홍보를 맡고 있는 윤나영 씨는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1980년대에 사망한 앤디워홀이 자신의 아틀리에가 공장이라는 상징을 두고 살았다면 우리는 2010년 지금 정말 공장에서 아틀리에가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의미가 무엇이 중요한가. 크리스마스 저녁, 피자마를 걸치고 문득 몇 걸음 걸어가 이 공장의 세계에서 즐길 수만 있다면, 우린 그저 두고두고 즐길 일이다.



共通禮節

공통예절

예절은 크게 나누면 공통예절, 생활예절, 의식예절이 있다. 공통예절은 생활예절의 각 분야와 가정의례,

사회의례, 국민의례, 국제의전 등 모든 의식예절에 두루 쓰이는 예절이다.

공통예절은 예절의 구체적 내용은 생활문화권 또는 언어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① 위계(位階)와 질서(秩序), ② 공손(恭遜)한 자세[拱手], ③ 공경을 나타내는 법[揖·屈身·拜·敬禮와 握手], ④ 예절의 방위[東西南北], ⑤ 상하석(上下席)의 기준, ⑥ 좌석배치의 실제, ⑦ 국민의례로 구성되었다.

이 공통예절을 알지 못하면 생활예절의 실천에 불편이 많으며 의식예절의 본의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1. 공통예절(共通禮節)의 의미

가. '우리' 더불어살이의 지혜

사람은 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을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라 말하고, 한자로 사람인 자를 '人'으로 쓴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여 존립하는 의존적 존재임을 표현한 글자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일을 윤리(倫理)라 한다. 동양에서 최고의 윤리로 삼는 것은 '인(仁) 사상이다. '仁'은 사람(人)이 둘(二)이라 쓰고, '어질다'고 해석한다. 글자의 모양은 사람이 둘이고 그 뜻은 어질다 하였으니 '인(仁) 사상은 '사람이 둘이다' '사람이 둘일 수 있는 것'으로 인간 공존의 슬기, 더불어 사는 지혜, '우리' 의식이다.

'우리'는 한국인 정신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너와 나로 구분지어 항상 '나'를 앞세우는데 우리 한국인은 '나'와 '우리'를 거의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우리에게 '너'와 '나'가 아닌 '우리'의 의식(意識)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로 함께 살려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며, 남을 사랑하려면 이기심(利己心)과 사욕(私慾)을 버려야 하고, 사양(辭讓)하는 마음인 예절을 실천해야 한다.

나. 더불어살이의 기본질서(基本秩序)

인간의 평등사상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말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범법적 인권(人權)을 말할 때나 적용되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전혀 효용성이 없는 말이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조직사회에서 위계질서가 무시된다면, 그 조직이나 사회는 와해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 남과 더불어 살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위와 아래, 앞과 뒤의 차례인 위계(位階)를 정해야 하고, 정해진 위계를 지키는 데는 분명한 질서(秩序)가 있어야 한다.

위계와 질서는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속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해서 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예절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독립된 인격체가 된다. 비록 독립된 인격체지

만 출생과 동시에 부모와 자식 간의 대인관계가 시작된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대인관계를 모든 대인관계의 원초(源初)라 하고 그 질서정신을 부모의 재애(慈愛)와 자녀의 효도(孝道)라고 한다.

그 다음으로 가지게 되는 대인관계는 형제자매(兄弟姊妹), 동기(同氣)간의 관계이고 그 질서정신을 우애공순(友愛恭順)이라 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父慈)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子孝), 형은 아우와 우애하고(友愛) 아우는 형에게 공순(恭順)하는 것이 모든 질서의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효도는 백가지 행실의 근본(孝는 百行之本이오)이며, 충성하는 신하는 효도하는 가문에서 나온다(忠은 出於孝門이라고 한다).

2. 위계와 질서(位階 秩序)의 기본

가. 가정의 위계와 질서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간에는 세대차(世代差)와 출생 선후차(先後差)에 의한 위계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세대차의 위계이고 형과 아우는 출생선후차의 위계이다.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세대는 윗세대이고, 아들 딸과 같은 세대는 아랫세대이며, 형제자매(兄弟姊妹)는 같은 세대이다.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사랑하고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효도로 모시는데 그것을 부자자효(父慈子孝)라 하고, 형은 아우와 우애하고 아우는 형에게 공순하는데 그것을 형우제공(兄友弟恭)이라 한다.

나. 사회의 위계와 질서

사회생활에서도 가정과 같은 위계가 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은 웃어른과 나이가 적은 아랫사람이고, 두 번째는 지위가 높은 상급자와 지위가 낮은 하급자, 그리고 나이가 같은 친구와 지위가 같은 동료가 있다.

웃어른은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경장애유(敬長愛幼)라 하고, 상급자를 섬기고 하급자를 부리는 것은 사존사비(事尊使卑)라 한다.

사회의 위계질서에 대해 동양의 성인 맹자(孟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① 조직사회에서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하고[朝廷 莫如爵]

② 일반사회생활에서는 나이를 최우선으로 하고[鄉黨 莫如齒]

③ 세상을 바르게 하고 백성의 어른이 되는 데는 학문과 덕성을 최우선(輔世長民 莫如德)으로 해서 위계를 정한다.

그리고 동양의 고전 예기(禮記)에 나이로 위계를 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① 자기보다 16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를 섬기듯이 모시고(年長以倍則 父事之),

② 자기보다 11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형님을 섬기듯이 모시고(十年以長則 兄事之),

③ 자기보다 6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선후배 사이로 지낸다.(五年以長則 肩隨之)

따라서 6년 이상 10년까지는 나이가 많은 쪽이 친구로 지내자고 허락할 때만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고(벗을 튼다), 5년 이내에 드는 사이는 서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말이다.

다. 특수분야의 위계와 질서

세대차이 연령차이 직급차이에 상관없이 위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제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앞선 사람과 뒤진 사람과 같은 경우이다.

라. 위계와 질서의 정리

1) 가정의 위계와 질서 | 부자자효(父慈子孝), 형우제공(兄友弟恭)
부모는 자녀를 어여뻐 여기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한다.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효도는 상대적(相對的)인 것이지만 쌍무적(雙務的)인 것은 아니다. 부모가 나를 죽일려고 해도 자녀는 효도를 해야 하고, 자녀가 살인을 했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는 인위적(人爲的)으로 떼거나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형은 동생과 우애(友愛)해 친구를 대하듯이 하고, 동생은 형을 각듯이 공경하며 순종하는 공순(恭順)을 해야 한다. 친형제(兄弟)나 친남매(男妹) 또는 친자매(姊妹)간이라도 동생과의 연령 차이가 10년 이내에 들면 친구같이 여겨 절拜禮도 답배(答拜)하고, 말씨도 낮춤 말씨인 '해라' 를 쓰지 않고 보통말씨인 '하계' 를 쓰는 것이다. 그러나 동생은 형이나 누님이 생일만 앞서더라도 각듯이 존대해 따르는 것이다.

2) 사회의 위계와 질서 | 경장애유(敬長愛幼), 사존사비(事尊使卑)
일반사회생활에서는 오로지 나이가 많고 적은 것으로 따져서

연장자를 공경하고 연하자를 사랑해야 한다.

나이는 영원한 계급이다. 연하자가 아무리 따라가도 연장자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두 살 사이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다.

① 부모같이 모신다(年長以倍則 父事之): 자기 나이의 배가 넘는 사람은 아버지같이 모신다고 했다. 배란 자식을 낳을 수 있는(생식 기능이 완비되는) 15세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기보다 15살이 넘는(16년 이상) 연상자는 나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부모 모시듯이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부모와 친구로 지내는 연상자는 자기보다 16년 이상 연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같이 모신다. 존장(尊丈)이라 해서 '어르신'이란 칭호를 쓰고 뵈을 때마다 절하며 극진히 공경한다.

② 형님같이 모신다(十年以長則 兄事之): 자기보다 11년 이상 15년 까지의 연상자는 형님을 모시듯이 모신다. 전에는 노형(老兄)이란 칭호를 썼고 깎듯이 존대한다.

③ 선배도 되고 친구도 될 수 있다(五年以長則 肩隨之): 자기보다 6년 이상 연상자는 연상자가 친구가 되자고 양해하면 친구가 되고 (벗을 트고), 연상자가 친구가 될 것을 양해하지 않으면 선배로 대접한다.

④ 조직사회에서는 상급자를 섬기고, 하급자를 부리는 것이다: 사 존사비, 즉 직급에 의한 질서는 부자자효와 달라 상대적일 뿐 아니라 쌍무적인 것이다. 즉 상급자가 제도와 정의에 맞게 하급자를 부릴 때 하급자는 상급자를 섬기는 것이다.

3) 재능(才能)의 위계와 질서 | 우교열학(優教劣學), 강보약뢰(強保弱賴)

사람은 각기 지닌 재능에 따르는 위계가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잘하는 우월(優越)한 사람이 있고, 못하는 열등(劣等)한 사람이 있다. 강한 체력이나 조건의 사람도 있고, 약한 체력이나 조건의 사람도 있다.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평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잘하는 사람의 주위에 못하는 사람이 모이고, 강한 사람 밑에 약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다.

4) 생활에서의 위계와 질서 | 선범후종(先範後從), 다시과로(多施寡勞)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앞서서 사람과 뒤진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다. 이것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이것들이 시기 질투를 일삼는다면 사회질서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앞선 사람은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뒤진 사람은 본받아 따라야 한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베풀어야 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더불어 살 수가 없다.

마. 위계는 없고 질서만 있는 3가지 경우

조직사회에는 반드시 위계가 있다는 것을 전향에서 살펴보았다. 가정을 위시한 모든 조직에는 그 구성원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아래와 위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조직이 가동될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조건과 능력에 따르는 위계가 인정되지 않는 분야가 3군데가 있다.

위계는 없는데 외형상으로는 위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운 경우는 좌석배치이다. 모든 좌석에는 상석과 하석이 있기 마련인데 위계가 없는 복수(둘 이상)의 사람이 위치할 때 누가 상석에 앉고 누가 하석에 위치할 것인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느냐는 문제이다.

사람은 위계가 없는데 좌석은 상하석이 있기 때문에 좌석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리는 문제이다.

그런 경우는 남녀(男女)와 주객(主客)과 문무(文武)관계로서 상하가 없는 경우이다

1) 남자와 여자는 상하가 없는 동위격(同位格)이다. 그러나 양(陽)과 음(陰)이 다르다

현대에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종래 남존여비(男尊女卑)였으니까 이제 남녀평등을 해야 한다고 열을 올린다. 잘 모르는 말이다. 그 사회가 남녀가 차별인가 평등인가는 일반 사회에서는 알 수가 없다. 같은 남자나 여자끼리도 조건과 능력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남녀라고 해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남녀가 차별인가 평등인가는 일반사회에서는 알 수가 없고 남자와 여자가 각기 지닌 조건과 능력이 장애요인(障礙要因)이 아니고 절대 필수 불가결의 요건(要件)으로 작용하

는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분야는 바로 부부관계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우리 가정의 부부는 완벽하게 남존여비였다고 생각한다.

예절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조선예학의 종장인 사계선생이 저술한 가례집람(家禮輯覽)에 보면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하는 데에 참뜻이 있다.

남녀가 몸을 합해 부부가 되면 남편이 높으면 아내도 높고, 남편이 낮으면 아내도 낮다(婚姻則 男女合體之義 男女合體則 男尊則女尊 男卑則女卑)”고 했다. 남녀가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 쪽은 높고 다른 쪽은 낮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상석과 하석이 있는 좌석배치는 어떻게 하는가. 남녀의 상하가 아니고 음양의 이치에 따른다. 여자는 음이니까 음의 위치에 앉고 남자는 양이니까 양의 위치로 가는 것이다.

동쪽과 서쪽에서는 동쪽이 해가 떠서 낮이 시작되는 양의 방위 이니까 남자가 동쪽에 위치하고, 서쪽은 해가 저서 어둠이 깃드는 음의 방위이니까 음인 여자가 서쪽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쪽과 서쪽에서는 산 사람은 동쪽이 상석이다. 양과 음의 이치로 남자가 동쪽에 위치하고 여자가 서쪽에 위치하면 결과적으로는 남자가 상석에 위치하고 여자가 하석에 위치하는 것이 된다.

이 논리가 적용되어 남자와 여자는 남자가 위이고 여자가 아래라는 진리는 아니지만 남자가 상석, 여자가 하석으로 의제(擬制, 看做)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동 여서(男東女西)라 말하고 이 논리로 남녀의 위치는 결정되는 것이다.

2) 주인과 손님은 상하는 없고 주인과 손님으로서의 처지(處地)가 다르다

그러면 좌석배치를 어떻게 해야 합리적일까?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라 그 집의 근본이 된다. 주인은 자기 집의 근본을 남에게 내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인이 동쪽에 앉고 손님이 서쪽에 앉는 것이다. 이것을 주동객서(主東客西)라 하고 이 논리로 주객으로서의 좌석배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의전에서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즉 청와대에서 우리 대통령이 외국의 국가원수와 합석할 때를 보면 우리 대통령(주인)이 동쪽에 위치하고 외국의 국가원수(손님)가 서쪽에 위치한다.

우리 대통령이 그 나라에 손님으로 가서는 우리 대통령(손님)

이 서쪽에 위치하고 그 나라 국가원수(주인)가 동쪽에 위치한다. 주인이 7살이고 손님이 70살이라도 주인이 동쪽에 위치하고 손님이 서쪽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하가 있어서가 아니고 주인이 자기 집의 근본인 동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3) 문(文)과 무(武)는 문무로서의 상하는 없고 문무(文武)의 역할(役割)이다르다

학문을 하는 문인이 높고 무기(武器)를 다루는 무인이라 낮은 것은 아니다. 무인(武人)은 손에 무기를 들어야 하고, 무기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殺傷)이라 흉기이고 흉방(凶方)은 서쪽이니까 무인은 서쪽에 위치하고, 동쪽이 비었으니까 당연히 문인이 동쪽에 위치한다.

이것을 문동무서(文東武西)라 하고 이 논리로 문무로서의 좌석배치를 한다. 옛 말에 양반(兩班)이라는 말이 있는데 임금의 왼쪽인 동반(東班)에 문관이 위치하고 임금의 오른쪽인 서반(西班)에 무관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 두 반을 양반, 즉 문무관(文武官)이라는 말이다.

왕능의 문무관 석상(石像)도 문관상(文官像)을 동쪽에 세우고 무관상(武官像)을 서쪽에 세운다.

3. 공손(恭遜)한 자세(姿勢), 공수(拱手)

가. ‘열중쉬어’는 공손하지 않다

위계와 질서가 분명해 졌으면 아랫사람은 웃어른 앞에서 공손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45년 8·15 해방이후의 우리나라의 공손한 자세는 ‘열중쉬어’이다.

선생님이나 어른의 말씀을 들으려면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학생뿐 아니라 제복(制服)을 입는 군대나 경찰 등도 상급자 앞에서의 공손한 자세는 열중쉬어이다.

이렇게 몸에 젖어서인지 사회생활에서도 열중쉬어의 자세가 당연하게 행해진다.

열중쉬어의 기본동작은 두 손을 뒤 허리로 돌려 두 손을 포개는 것이고, 그런 동작을 우리는 ‘뒷짐 진다’고 한다.

언제부터 어른 앞에 뒷짐을 지는 것이 공손한 자세란 말인가!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무례한 자세이다.

이 부분이 바로 8·15 해방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지 못한 비애(悲哀)라 하겠다. 열중쉬어는 미국의 군 예법(軍禮法)

이다. 8·15 해방직후 미군정(軍政)을 받았고, 우리 국군의 지휘권이 미군에 이관(移管)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의 훈련방법과 예법이 미군의 그것을 따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학교교육도 그렇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주 국가이며 군의 지휘권을 회수할 것에 대비하여 당연히 공손한 자세도 우리의 정서에 맞는 우리의 것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나. 손을 앞으로 모아 잡는 공수(拱手)

어른 앞에서 뒷짐을 지는 것은 우리의 공손한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는데 이것을 공수라 하고 옛 문헌에는 차수(叉手)라고도 했다.

어른을 모실 때와 의식행사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공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현대의 '차렷' '열중쉬어'를 하는 경우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공수를 했다.

공손한 자세는 어른에게는 공손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에게도 편안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열중쉬어는 두 손을 허리 뒤로 돌려 포개서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이 든다.

군인이 총을 어깨에 메고 열중쉬어를 할 때는 오른 손으로 총의 벨 끈을 잡고, 왼쪽 손 하나만 뒤로 돌려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들고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두 손을 앞으로 모아 맞잡는 공수는 집총을 했을 때도 부담 없이 수월한 자세가 된다.

다. 공수(拱手)하는 방법

1) 공수의 기본동작(基本動作)

두 손의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서 편 다음 앞으로 모아 포갠다. 엄지손가락은 엇갈려 각지 끼고 식지 이하 네 손가락은 포갠다.

아래에 있는 네 손가락은 가지런히 펴고, 위에 있는 네 손가락은 아래에 있는 손의 새끼손가락 쪽을 지그시 쥐어도 된다.

(그림 2222-1, 2222-2,) 엄지손가락을 각지 끼어 엇갈리는 까닭은 손등을 덮은 소매 사이로 엄지만 내놓아 반대쪽 소매 끝을 눌러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또 옛날의 의식행사에서 의식절차나 자기의 역할 등을 적어서 참고하는 메모지 등을 붙여서 두 손으로 드는 홀(笏)을 쥐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2) 평상시(平常時)의 공수법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공수한다. 왼쪽은 동(東)쪽이고, 동(東)이 양(陽)이기 때문에 양(陽)인 남자는 양(陽)인 동(東)을 나타내는 의미로 왼손을 위로 하고, 오른쪽은 서(西)쪽이고 서(西)는 음(陰)이기 때문에 음(陰)인 여자는 음(陰)인 서(西)를 나타내는 의미로 오른손을 위로 한다.(그림22-1, 22-2)



2222-1 남자 평상시 공수



2222-2 여자 평상시 공수

3) 흉사시(凶事時)의 공수법

흉사시의 공수는 평상시와 반대로 남자가 오른손을 위로하고, 여자가 왼손을 위로 한다.(그림 2223-1, 2223-2)

흉사란 사람이 죽은 때부터 약 백일 만에 지내는 졸곡(卒哭) 제사 직전까지를 말한다. 상가의 유족(服人)이나 손님, 영결식장, 상을 당한 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는 흉사시의 공수를 한다.

상가에서 지내는 초우·재우·삼우(虞祭)까지의 제사는 흉사(凶祀, 흉한 제사)에 속해 흉사의 공수를 하지만, 졸곡부터의 제례는 흉사가 아니고 길사(吉祀, 길한 제사)이므로 평상시의 공수, 즉 남자는 왼손이 위이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가 되는 공수를 한다.



2223-1 남자 흉사시 공수



2223-2 여자 흉사시 공수

4) 공수한 손의 위치

① 소매가 넓고 긴 예복을 입었을 때는 남녀 모두 팔뚝을 수평이 되게 해야 예복의 소매가 가지런해서 아름답다. (그림 2224-1, 2224-2)



2224-1 남녀 예복 공수 위치 2224-2 남녀 예복 한복 공수 위치



그림 2224-6 짧은 치마 공수 위치

② 평상복을 입었을 때는 공수한 손을 자연스럽게 내리면 엄지가 배꼽부위에 닿는다.(그림2224-3)



2224-3 남녀 예복 한복 양복 공수위치



2224-7 남자 무릎 세울 때 공수위치2224-8 여자 무릎 세울 때 공수위치

③ 공수하고 앉을 때는 남자는 두 다리의 중앙이나 아랫배 부위에 공수한 손을 얹고, 여자는 오른쪽 다리 위나 세운 무릎 위에 얹는다.(그림 2224-4, 2224-5)



2224-4 남자 바닥 앉을 때 공수위치 2224-5 여자 바닥 앉을 때 공수위치

④ 여자가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었을 때는 공수한 손을 오른쪽 다리위에 얹는 것 보다 남자와 같이 두 다리의 중앙에 얹거나 짧은 치마 끝을 지그시 누르듯이 한다.

남녀 모두 한무릎을 세우고 앉을 때는 세운 무릎위에 공수한 손을 올려 놓는다.

바로잡음

지난 2010년 1월호 '한국의 예절' (46-53쪽) -예절이란 무엇인가? - 중 <더부살이>란 단어가 여러 번 씌어졌다. 그런데 그것은 제작과정에서 필자가 쓴 <더부살이>를 오해하여 <더부살이>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더부살이는 덧붙여 사는 기생(寄生)이고, 더부살이는 덧붙여 함께 사는 것으로 그 뜻이 완전히 다르다. 편집자가 보는 국어사전에 <더부살이>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었다. 집필하신 선생님과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바로잡는다.

5) 남좌여우(男左女右)의 이유

이상 공수하는 방법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은 소위 남존여비(男尊女卑)사상이 아니라 양(陽)과 음(陰)의 이치를 자세에서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남좌(男左) 여우(女右)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태양광선은 생명의 원천(源泉)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태양광선을 가장 잘 받는 남쪽을 향하는 것이 정칙이다. 남쪽을 향하면 왼 편이 동쪽이고 오른 편이 서쪽이다. 동쪽은 해가 뜨니까 +(陽)이고, 서쪽은 해가 지니까 -(陰)이다. 남자는 양(陽·+) 이니까 남자의 방위는 동쪽인데 그 동쪽이 왼편에 있으니까 남자는 좌(男左)이고, 여자는 음(陰·-)이니까 여자의 방위는 서쪽인데 그 서쪽이 오른편에 있으니까 여자는 우(女右)이다. 남좌여우(男左女右)란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이라는 말이다.(男東女西)

편집회의

지난 1월 14일 세종문화회관 벨라지오에서 2010년 제1회 편집회의를 가졌다. 이날 편집회의에는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해 편집위원인 곽효환 위원, 김종 광주서구문화원장, 한춘섭 성남문화원장(가나다 순)과 실무자가 참여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처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우리문화는 많은 변신을 꾀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한춘섭 위원(이하 한)

칭찬할 게 많이 늘었다. 1년 동안 애쓰는 게 이제야 결과를 보는 것 같다. 혁신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 문화가족들이 대다수 젊은 세대이므로 발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에서 항교와 서원을 테마로 꾸준히 이끌어 갔다. 잘 된 항교 서원에 대한 테마를 다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은 심플하고 모던하게 가는 게 요즘 추세이므로 그렇게 가보는 것도 좋겠다. 악물과 부호 등도 자제하자. 또한 목차에 액센트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 좋겠다. 콘텐츠 잡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잡지는 재밌어야 하므로, 청탁 넣을 때도 재밌게 써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한다. 그리고 지면이 너무 적다. 면수를 늘렸으면 한다. 컬러를 2도 정도로 만들고 그 비용으로 지면을 늘리면 어떨까 한다.



최종수 회장

최종수 회장(이하 최)

조금 추가하자면 경기의 설봉서원 과천항교 등 작년 한 해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했다. 전국적으로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수한 사례가 많다. 메모해두었다가 추진해보았으면 한다.

곽효환 위원(이하 곽)

1월호부터는 변화가 많다. 잡지라는 게 잡다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에게 아직 아가지기하게 읽을거리가 부족하다. 무거운 이야기와 가벼운 이야기 등 읽을거리에 강약을 주는 게 중요하다.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다.

우리문화가 지향하는 비는 문화원 소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답문을 만들어 가고 제시해야 한다. 좀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원고수록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데 문화원의 파워인터뷰, 하는 식으로 인물을 다뤄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번에 회장님 신년사가 실렸는데 평이한 신년사보다는 편집위원 중의 한 명하고 인터뷰를 했어도 재밌게 나왔을 거다. 그렇게 되면 쌍방향 원고가 된다. 인터뷰를 넣음으로 인해 더 새롭고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한 예로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의 인터뷰 설명) 또한 문화원에서 이슈가 된 이야기가 있다면 새롭게 다뤄보자.

두 번째로 표지의 파격적인 측면을 칭찬해주고 싶다. 그런데 그에 비해 내지는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것 같다. 변화하고 있는데 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

편집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특집 기획 등 좀더 분명한 꼭지명을 잡아야 한다. 꼭지의 제목 자체가 글 캐릭터를 잡는 데 큰 영향을 준다. 디자인

김종 위원(이하 김)

우리문화 만들면서 편집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너무 힘들게만 생각지 말고 본인의 성장에도

김종 위원

움이 된다 생각하라. 이번이 제일 중요한 것은 책의 발행 시기를 맞춘 것이다. 고생하여 맞춘 것이니만큼 계속해서 진행하길 바란다.

책의 지면이 100면 정도는 가야한다고 본다. 또한 지면 배정에 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꼭지의 길이가 기준 없이 길거나 짧거나 하면 안 된다. 4쪽 이상 잡는 것은 무리니 그 이하로 하도록 한다. 이번 호의 한국의 예절 섹션이 너무 길었다.

짧은 내용 속에 가치를 담자. 칼럼 같은 경우 1월호의 칼럼제목이 '지방문화원의 발전방향과 그 과제' 이런 딱딱한 제목 말고 하다못해 '지방문화원 발전하고 있나' 이렇게라도 잡아야 한다. 제목에서부터 확 끌리는 걸 잡아라. 제목을 톡톡 튀게 끊임없이 고민할 것을 당부한다.

얘기 나온 대로 인터뷰 형식의 원고도 좋다. 더불어 좌담회 같은 걸 열어도 좋겠다. 그런 경우 좌담회는 내용에 따라 지면이 조금 더 할애 되도록 하는 것이다.

흑백에도 깊이가 있으므로 올 컬러보다 흑백지면을 사용하면서 칼라지면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는 표 4 부분에 광고가 안 들어갔는데 큰 광고를 따서 넣어야 한다. 표 4광고를 좋은 것을 하면 그만큼 책의 가치도 오른다. 디자인도 그렇지만 판형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자. 파격적으로 가도록 긴 형태나 정사각형 형태도 좋겠다. 또한 사진배치를 좀더 역동적으로 하자.

네모놓기만한 배경은 딱딱하고 좋지 않다. 앞으로 기획안을 편집위원들에게 미리 나누어주어 서로 제목이나 내용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면 한다. 누구나 좋은 의견을 주지만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나가야 한다.



한춘섭 위원

한 제목에 집중력을 두자. 미리 보내주면 제목은 우리가 손봐줄 수 있다. 또한 지면을 늘리기에 앞서 직원보충이 시급한 문제다. 인원의 보충 부분이 중요한 원동력이고, 그렇게 되어야 지면과 내용이 강화된다.

꼭 글의 제목에 신경을 써야한다. 제목이 글의 절반이다. 제목이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좀더 고민해야 하겠다. 이번 1월호의 종로문화원이나 향토사 원고도 제목도 너무 평이하다. 신문기사를 볼 때 제목으로 클릭하는 것처럼 제목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작년과 많이 달라지고 좋아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

최 이번 1월호는 계획보다는 좀 늦었다.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정책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실어야 한다. 문화로 촘촘히 사업처럼 그런 측면에서 기사를 다뤄라. 또한 젊은이들을 위한 가족문화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생각해보자. 사진을 좀더 과감하게 사용해보고 문화원 소식 등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고 다뤄야 한다.

표4 광고를 넣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 작년 한 해 기획사와 인쇄소도 고생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한 해 움직여야 하니까 비용이 좀 저렴한 젊은 기획사나 인쇄소와 일해 보는 것도 좋겠다. 좀더 협의해보자. 기획안을 미리 보내 검토해야 한다. 보조인력이 어려운만큼 더 힘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

김 지난번 성남문화원에서 직원 보조 이야기가 있었다. 그건 어떻게 되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로 촘촘히는 어떤 것인지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최 그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우리 문화원이 전국적 네트워크가 되는 만큼, 그런 구석의 문화, 아주 저변의 문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문화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문화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이다. 편집자가 기획한 춤추는 문화원이 문화로 촘촘히와 연계될 수 있을 듯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보라.

다만 글의 제목에 신경 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순한 스트레이트 기사보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하여 원고를 만들면 좋겠다. 판형을 변화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유기적으로 오밀조밀한 원고청탁과 기획도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문화원행사 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기사를 엮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 문화원과 직접 연계하여 그 지역의 숨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자. 한 달에 한 페이지라도 노력해보자.



곽효환 위원

곽 월간지이기 때문에 매달 만들다 보면 쫓기면서 만들게 되는데 지금쯤이면 사실 3월호 기획안이 나와야 한다. 작년 한 해 편집자가 고생을 해서 이만큼 시기를 맞춘 것으로 안다.

지속적으로 시기를 맞춰 발행해야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히트 치면서 시민기자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졌다. 우리도 문화원에서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게끔 노력하자.

김 기자단을 위촉하여 잘 활용하자. 문화원 곳곳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소개할 만하다. 객위원의 말대로 잘 진행하라.

최 기자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로를 열겠다. 오늘 말씀 감사하다. 좀더 노력해서 발전하는 잡지가 되겠다.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강동문화원

『좋은동네』 발간 기념 간담회 개최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이 지난 12월 15일 다누리미술관에서 새 출발 2주년 신년인사회 및 계간지 『좋은동네』 겨울호 발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덕기 전서울시장과 권용태 한국문화원연합회 고문과 김성욱 강남문화원장(부원장2명과 사무국장) 임한중 서초문화원장 신길웅 광진문화원장 이영우 송파문화원장 강영숙 예지원장등 대외 인사와 대내 인사로는 이해식 강동구청장, 윤석용 국회의원 시의원(박희성, 이지철, 양준욱)과 강동구의회장을 대신해 부의장 기명욱과 구의원(김양모, 조동탁, 심우열, 박재윤, 김중희, 김용철, 김창중, 김정숙, 박혜옥), 문화예술단체장(전재동 초대 문인협회장, 윤철환 강동문인협회장, 김승근 강동미술협회장, 이영화 무용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언론인으로 이명지 토요저널대표, 권경호 구민신문 발행인 동부신문 정현철기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강동농협 '색소폰 패밀리'에서 신년 축하 연주로 신년인사회의 분위기를 한층 더 높였다.

거창문화원

임시총회 및 행사 평가 종강 행사 가져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12월 22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서 2009년도 임시총회와 더불어 문화원 행사 평가 및 종강 행사를 가졌다. 내년 1월 23일 임기가 끝나는 원장 및 이·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이번 임시총회에는 임원 선출의 건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일부 개정의 건과 거창문화원 임원 선거관리 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회 결과 정주환 현 원장과 신광범·변범식 감사를 유임시켰고, 개정 정관에 의거해 부원장 5명을 포함한 이사 29명은 신임 원장에게 위임했다. 임시총회 이후에는 문화원 행사 평가회와 거창노인복합문화관 종강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장례식보존회, 행사운영위원회, 향토연구위원회, 여성위원회, 거문산악회 등 분과별 종합보고를 통해 올 한해 문화원 사업을 평가하였으며, 민요실, 연극교실, 노래교실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공연이 이어졌다. 서예교실과 한시교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친목 율놀이 대회도 개최하여 회원들의 화합을 모도하였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문화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한 해는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마산문화원

마산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상식



마산문화원(원장 임영주)은 29일 오후6시 사보이호텔 4층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마산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영예의 대상은 〈애니메이션〉 인류를 구하는 마지막 열쇠 〈성신대제의 비밀〉(한동규 김은정 송미소) 최우수상에는 〈소설〉 팔용산 톨탑의 비밀 (김봉천) 이 각각 수상하였다.

문경문화원

문경새재는 왜 고갯가? 2009 문경새재아리랑제 성료

문화원이모저모 NEWS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은 12월 19일 문경시민문화회관에서 신한국 문경시장, 고오환 문경시의회의장, 채대진 문경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문경새재아리랑제'를 열고, 우리나라 아리랑의 만형인 '문경새재아리랑'을 무대화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축제는 아리랑 편곡 연주곡을 배경으로 아리랑 100년을 춤과 영상으로 구성하여 공연을 펼쳤다. 네 마당으로 구분, 악극 형태로 무대화한 이날 공연은 1장 일상의 고개, 2장 상실의 고개, 3장 희망의 고개, 4장 환희의 고개로 소리극을 펼친 것이다. 들끓는 소리, 땀 흘리는 소리, 종모리 문경새재아리랑으로 짜인 1장은 우리민족의 토착적인 일상의 삶을 표현하였고, 군무와 정선아리랑, 험버트 채보 아리랑으로 짜인 2장은 수탈과 학정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절곡의 삶을 표현하였다. 광복군 아리랑, 풍물 한 마당, 니를 두고 아리랑 등으로 짜인 3장은 일제 강점기와 분단의 삶 속에서도 경제성장의 의지 속에 희망을 품은 모습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홀로아리랑, 세마치 문경새재아리랑 등으로 짜인 4장은 희망과 미래의 삶을 표현해 냈다. 특히 퓨전연주단과 '새 문경아리랑'을 작곡하여 선보인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으며, 문경새재아리랑의 무대화 가능성을 펼쳐 보인 것이 특징으로 평가되었다. 이 행사는 (사)한민족아리랑연합회 대구·경북지회장인 김기현 경북대 교수가 기획하였고, 예술마당 술의 박재욱 대표가 연출하였다.

향토사료 22집 발간



문경의마을사 1 - 산북의마을들(서중,대상,대하,김용리 편)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은 12월 30일 문화원 대강당에서 향토사연구소(소장 김학모)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문화원 향토사료 22집 '문경의마을사 1 - 산북의마을들(서중,대상,대하,김용리 편)'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번 향토사료집에는 제1장 좁은 물길을 따라 세월은 흐른다(윤천근 교수)를 시작으로, 제2장 마을의 형성과정과 세가성씨, 자치조직(정진영 교수), 제3장 장수 향세 입항과정과 문적(황만기 교수), 제4장 보가리의 부환당, 시골 선비 김해의 삶과 학문(인병걸 교수), 제5장 청대 권상일의 관료적 삶과 학문경향(김남기 교수), 제6장 금제 권상룡의 관료적 삶과 학문경향(권진호 교수), 제7장 퇴경 권상로의 생평과 문학(전재강 교수), 제8장 근암서원의 역사와 배향인물(이해영 교수), 제9장 석문구곡의 자취와 시정을 더듬어(김원준), 제10장 정로복전에 자리 잡은 운달산 김룡사(이효걸 교수), 제11장 김룡서 공동체신앙의 전승양상과 의미(한양명), 제12장 서중,대상,대하,김용리의 민족운동(한준호 교수), 제13장 근현대 100

년의 역사를 더듬어서(강윤정 교수), 제14장 문경시 산북면 전통민가(정연상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동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14명의 대학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삼척문화원

2010 척사(웃놀이)대회



삼척문화원(원장 : 장세훈)은 1월 8일(금) 문화원 앞마당에서 문화원 회원들과 문화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웃놀이대회를 열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과 수강생들 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활기찬 한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에서도 회원 및 수강생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푸짐한 상품과 더불어 삼척정월대보름 신주(神酒)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등은 한문교실의 배기남님, 2등은 한문교실의 진상택님, 3등은 국악교실의 심옥너님이 수상하였다.

성남문화원

2010 천제봉행(天祭奉行) 거행



성남 문화원(한춘섭 원장)은 지난 1월 1일 오전 7시30분에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으며, 성남시민의 화합을 다짐하고 새 각오와 소망을 기원하는 "2010 새해, 천제봉행(天祭奉行)"을 여수동 성남 신청사 앞 광장에서 거행했다. 식전 행사는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 퍼포먼스 '동방의 아침'이 공연됐으며, 신년 축시에는 한춘섭 작시 '아침의 나라에서'를 이주희 낭송으로 이어졌다.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주행사인 천재봉행(天祭奉行)은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과 시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천재봉행(天祭奉行) 참례자에는 이대엽 시장, 김대진 시의회 의장, 한춘섭 성남문화원 원장, 방영기, 정재영 경기도의회 의원, 황평산, 이정범 문화원부원장, 한동익 문화원이사, 안일준 문화학교 교장이 참석했으며, 영하14도의 추운날씨에도 많은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후 행사인 새해 메세지 전달에서 초헌관을 맡은 이대엽 시장은 성남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 했으며, 아헌관과 중헌관을 맡은 김대진 의장과 한춘섭 원장은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건승이 있기를 기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인년 새해 새 각오와 소망을 바라며 '대복타고'를 치며, 마지막 공연으로 '성남 오리뜰 두레농악'과 함께 '2010 새 해, 천제봉행' 행사를 함께 했다.

정선문화원

제1회 정선문화원장기 풍물놀이 경연대회



정선문화원(원장 유경은)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제1회 정선문화원장기 풍물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관내 9개읍면 10개팀이 출전하여 각 팀들의 특색있는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으며 정선읍 풍물아리 팀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풍물놀이 경연대회는 우리전통 문화인 풍물놀이를 널리 전승·보급하고 경연대회를 통하여 지역 동아리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개최되었다.

정선군민을 위한 2009 송년음악회



정선문화원(원장 유경은)은 지난 2009년 12월 21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정선군민을 위한 2009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정선문화원이 주최하고 삼척MBC가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추기열, 현숙, 남궁옥분 등 총 8팀의 인기가수가 출연하여 MBC 라디오 공개방송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공연에는 문화예술회관 450석이 모자를 정도의 많은 군민들이 찾아주어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문화 활성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되었다.

포천문화원,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 시상식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2월 24일 포천문화원 2층 강의실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 당선작 시상식을 문화원 임·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몰려오는 경제위기, 사회불안 등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을 좀 더 밝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고향으로 분위기를 일신시키고자 시작 된 사업으로서, 이번 공모에 전국 각지에서 감동적인 내용을 유려한 편지글로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정겨운 편지를 쓰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 하겠으며,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포천문화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영예의 장원은 포천시 송석림님의 '내 영원한 동반자'가 차지했으며, 차상 광주시 장오선님, 차하대구시 정병욱님, 성남시 서은주님, 특선은 포천시 용명숙님, 경남 사천여고 김시내 학생, 군포시 안양예고 심영숙 학생, 충남 논산시 벨곡제학교 안은지 학생, 입선에는 경북 경산시 장미선님, 서울시 송파구 장미숙님, 충남 논산시 벨곡제학교 함지희 학생, 서울시 동대문구 김보숙님, 포천시 흥명기님 등 총 13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서 협찬한 농산물상품권이 증정되었다. 포천문화원은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을 매분기별로 연중 공모하고 있으며, 장원작은 "포천문화사랑" 책자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포천문화원 ☎ 031-532-5015, 5055, FAX 536-1020, 홈페이지: <http://www.pcmh.or.kr>, e-mail: kgpc1986@yahoo.co.kr으로 문의 하시면 된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제1차 이사회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2009회계연도 사업 실적 및 결산안과 201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3호 안건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원가입 승인의 건과 제49차 정기총회 개최를 1월 28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등 5건의 의안을 심의 승인 하고 기타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최중수 회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국고 및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이야기와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사업 등이 발표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력을 기울여 확보하여 지방문화원에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최중수 회장 등 이사 22명, 감사 2명이 참석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2월 일정

- 2010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사업공고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향토사대중화 사업공고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예정)

-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설명회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 토론회 예정

- 문화부 관계자 및 연합회 실무자로 227개 지방문화원을 6개 권역으로 구분 설명회 개최
- 정부 추진 정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문화원 담당 공무원, 문화원 임직원 대상 설명회 추진
- 문화원장의 의견수렴 및 상호소통으로 인한 효율적인 문화사업 수행
-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의 필요성을 확산시킴으로써 대내외 지원과 관심유도

※ 일정 추후조정

- 회장단 회의

- 운영위원회 회의

우리 문화 소식 NEWS

2010년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주최 '2010년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6일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있었다. 새해를 맞아 문화예술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격려하며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광수의 바나나 공연과 이근배 시인의 축시 낭송, 국립무용단의 축하공연 등의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2010년에는 생각을 현실로, 상상을 가치로, 창조력을 미래의 가치로 만든다는 가치 아래 문화예술인 여러분과 함께 품격 높은 대한민국을 열어 가고자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김일동 의원, 김창수 의원, 주호영 특임장관, 대한민국예술원 관순형 회장과 예술원 회원 20여 명을 비롯한 700여 명의 예술인이 참석했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과 지방문화원장 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감사



지난 1월 8일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실에서 2009년도 사무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였다. 전년도 권고사항 조치결과와 아래와 같았다. ① 지방문화원의 행정업무 매뉴얼 개발 및 직원교육 강화와 관련 지방문화원 운영 행정업무 편람을 제작 보급 하였고 ② 지방문화원의 회계업무 전산화 구축과 관련 회계전산 프로그램을 구축 전국문화원에 보급하였으며 ③ 증전 복권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향후 안정적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밝는다. ④ 서울 서초문화원과 부산 서구·동구 문화원을 설립함으로써 2009년 말 전국 227개 지방문화원이 활동하게 되었으며 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근거인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변경운영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 원장님들과 공동 노력하여 그 운영 기한이 5년 연장 되었습니다. (2009. 12. 31 → 2014. 12. 31)

2010년 사업 진행시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았다. ① 지방문화원 운영 편람 보급 및 회계전산화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실무자 교육을 강화

시켜 줄 것과 ② 부산(중구, 해운대구, 사하구, 영도구), 인천(동구, 옹진군), 충남(도계동) 등 7개 지역의 문화원 미설립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문화원연합회가 이 지역에 문화원이 설립되도록 적극추진 해 줄 것과 ③ 지역에 묻혀있는 향토문화 사료 발굴 활성화를 위한 2011년 신규예산을 확보토록 노력 해 줄 것과 ④ 연합회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일선 문화원 방문을 통한 현장의 애로 및 건의 등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⑤ 연합회가 추진하는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시·군 지방문화원 인배를 통하여 전국문화원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 해 주실 것과 ⑥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2010년에는 절대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감사로는 고창식 평창문화원장과 정경진 니주문화원장이 역임 중이다.

회장동정

· 1월 11일 전남도지회장 퇴임식 · 1월 18일 2010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회의 참석

Good 디자인 + Best 카피

혹시,

홍보인쇄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글쓰는게 걱정되나요?

정기간행물을 만들고 싶어도 팜플렛을 제작하고 싶어도 '글' 이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걱정마십시오.
저희들이 대신 써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더 설득력있게 표현하는 디자인을 원하시나요?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게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글' 이 얘기하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작업입니다.
몇마디를 하나의 이미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